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No. 1029 1983년 1월 13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Thursday, January 13, 1983

JAN 1 3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서자도 초청이민 가능"

연방항소법원 새로운 판례

캐나다 영주권자의 법적 혼인외 자식이라도 캐나다에 초청, 이민올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

11일 연방항소법원은 중국계 토론토시민 연체씨의 둘째 부인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온타리오주법에 따라 아버지의 초청으로 캐나다에 이민올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연씨는 1971년 홍콩으로부터 이민오기 전에 있었던 이중결혼에서 태어난 3명의 자식을 초청해 오려고 신청서를 캐나다 이민국에 제출했으나 이민국에서는 서자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연방항소법원에 탄원했다.

연방이민법에서는 영주권자가 혼인외 또는 일부다처제 아래서 얻었던 자식들을 이민초청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 엄격한 이민법은 중국계 자녀들과 결혼 안하고 동거를 많이 하는 자마이카등 서인도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어왔다.

연씨는 중국본토에서 두번째 결혼했으며, 중국법하에서는 모두 합법적인 결혼으로 간주된다. 그는 현재 토론토에서 첫째부인과 9명의 아들·딸들을 데리고 살고있다.

연방항소법원은 연씨가 자녀 이민초청신청서를 제출했을때 온타리오에 거주했기 때문에 연방이민법 대신 온타리오법을 적용한다고 판시했다. 온타리오주법은 혼인외 자식이라도 법적으로는 자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C.주와 뉴브룬스위크주도 중혼 또는 이에 의한 자식을 법적으로 인정한다.

연씨를 변호했던 이민변호사 멘델그린씨는 11일 이것이 캐나다 판례에 이정표를 놓았다. 지금도 수많은 캐나다시민의 실질적 자식들이 캐나다에 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인남자 6명 실험에 성공

성장홀몬 인체에도 효력

캘리포녀주 라호야의 솔크(SALK)생물학협회 연구팀이 구조를 확인한 인간 성장을 조절하는 GRF(생장호르몬분비촉진인자·Growth Hormone Releasing Factor) 합성물질을 버지니아대학 연구팀이 인체에 투여한 결과 생장호르몬 수준이 활발히 증가했다고 LA타임스가 8일 영국의학지 「랜셋」을 인용 보도했다.

버지니아대학의 과학자들은 최근 이 GRF합성물질을 6명의 성인남자에게 투여한 결과 이사람들의 생장호르몬 수준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SALK연구팀의 기대대로 왜소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에게 성장을 촉진시키고 가축을 정상보다 더 크게 성장시키는데 GRF합성물질을 궁극적으로 사용케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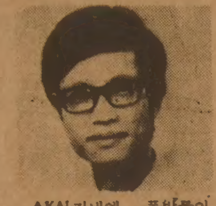
실험대상이 된 사람들은 모두 정상인으로, 지극히 적은 양의 GRF합성물질이 투여돼 이 약품에 의해 어떤 다른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혈액내 생장호르몬 수준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GRF합성물질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두뇌에서 생산되는 GRF는 인간의 성장기중 어떤 기간에 생장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것이 모자라면 난장이가 되는 경우가 있다. 반면 생장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면 골격성장과 체중, 연결조직의 형성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번 실험을 실시한 버지니아대학 연구팀은 GRF가 왜소병과 거인병을 치유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래에는 노인들에게도 투여돼 생장호르몬 분비를 자극하고 노화의 증세를 변전시킴으로써 노화방지에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과학자들은 GRF는 또 세포조직 소모를 치유하는데도 이용, 화상이나 커다란 수술후 상처를 빨리 치료하는데도 공헌할 것으로 밝혔다.

KAL기 폭발물 소동

정신질환자 소행



▲KAL기내에 폭발물이 장치됐다는 허위편지를 보낸 중국인 곽영명씨.

지난 8일 새벽 기내에 폭발물이 장치됐다는 정보로 일본 나리따 공항에 비상착륙한 뉴욕발 서울행 KAL 007기의 소동은 중국인 정신질환자 탑승객의 소행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곽씨는 지난 7일 대한항공 토론토지점에 KAL기에 폭발물이 장치됐다는 편지를 보냈었다.

커머스은행 비자카드

이자율 21%로 하락

커머스은행(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의 비자카드(VISA) 소지자들은 3월부터 이자율을 연 21% 물게된다. 지금까지 커머스은행 비자의 이자율은 24%였다.

토열뱅크, 스코시아뱅크, 토론토 도미니언뱅크등도 이자율하락을 검토중이다.

현재 24.6%를 물리고 있는 몬트리얼은행및 28.8%를 물리고 있는 각 백화점도 크레딧·카드 이자율하락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커머스은행은 중앙은행의 금리가 인하추세에 있음에 따라 최우대금리를 14.75%에서 14.5%로, 5년형 모기지의 이자율을 13.5%로 내리고 1년형 모기지의 이자율을 12%에서 11.75%로 내렸다.

社 告

◆ 영자 제호가 바뀌었읍니다. ◆

토론토 한국일보사는 8일자부터 1면 머리의 영자제호를 「The Korea Times Toronto」에서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으로 변경, 「Edition」이란 말을 추가하고 글씨체를 위의 모습으로 바꿨읍니다.

종전 글씨체는 서울서 발행되는 본보 영문자매지 The Korea Times의 제호를 따온 것이며 새 글씨체는 한국일보 해외지사의 통일제호입니다. 따라서 모든 한국일보 해외지사는 원모습의 제호를 가졌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론토 한국일보사

제2의 「블랙·홀」 발견

2명의 캐나다 천문학자

(오타와)2명의 캐나다천문학자는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물체중의 하나인 「블랙·홀」(검은구멍)의 실체를 확인하는데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

국립연구원(National Research Council)에 근무하는 죤·허칭스와 데이빗·크램프톤 연구원은 미시간대학의 안네·카우리 박사와 공동으로 제2의 「블랙·홀」을 찾아냈다.

블랙·홀이란 지구의 무게 정도로 무거운 물체가 차숟갈크기 정도로 압축된 그런 물질의 파편으로 이루어진 별로 믿어진다.

일부 과학자들은 「블랙·홀」들이 또다른 우주로 통하는 관문을 형성할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하고있다.

LMCX-3으로 불리는 이 새로운 「블랙·홀」은 은하수(Milky Way)와 이웃하고 있는 "Large Magellenic Cloud"라고 하는 또하나의 은하계에서 발견되었다.

은하 보석
란콤화장품 대리점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귀국선물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11일 하오 메트로 북부에서 일어난 비행기 추락사고로 석유회사 중역들을 비롯한 승객 5명 전원이 숨졌다. 추락전의 모습과 처참한 사고 현장.

(관계기사 2면에)

"대통령보다 인권운동 계속"

"한국 言論自由회복되면 모든것 밝혀질것"

김대중씨 NCC초청 뉴욕서 기자회견

〈뉴욕지사〉 미전국교회협의회(NCC)초청으로 뉴욕에 온 김대중씨는 대통령이 되어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꿈보다는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신장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9일 하오3시 워싱턴DC에서 이스턴항공편으로 뉴욕공항에 도착한 김씨는 10일 낮 맨하탄의 인터처치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는 죽음의 고비를 4차례 넘겼고 71년과 80년 두번 대통령이 될 기회가 있었다.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거나 권력을 장악할 꿈보다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하고 나머지는 국민과 하나님에게 맡기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한국정부가 그를 도미시킴으로써 국내에서 그의 정치적영향력을 제거하려하고 있어 그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정부가 그를석방, 미·일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실현하고 국민에게 인도적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등의 이득을 얻으려고 했을 것이나 『한국정부의 이득을 주고 안주고는 나에게 달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가 도착한 라과디아공항에는 민주구락부인사들과 뉴욕의 호남향우회관계자들 교포1백50여명이 마중나왔으며 태권도사범들이 김씨를 경호하는 모습도 띠었다.

그는 왜석방되었는가라는 질문에는 『한국정부에 물어보라』고 답했으며 미국에서 정치활동할 구체적계획은 없으나 『주어진 여건에서 인권회복운동은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언론자유가 회복되면 자신에 대한 모든것이 밝혀질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오는 20일까지 워싱턴조지타운대학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시간이 허락되면 하바드대학이나 워싱턴지역의 대학에서 잠시 연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동포들 원하면 위험불구 歸國

〈뉴욕-UPI〉 신병치료차 도미한 김대중씨는 10일 『동포들이 내가 반드시 귀국해야 한다고 느낀다면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전미국기독교협회가 마련한 만찬이 시작되기 전 이같이 말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전두환 대통령의 정부에 대한 반대운동 계속여부에 대한 결정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캐나다한국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536-1692
R.245-3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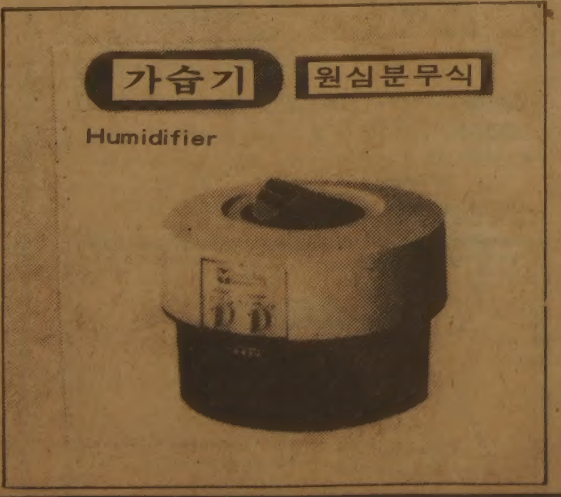
강찬영
변호사 사무실
☎ 961-2417
410 DUNDAS ST. EAST TORONTO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B) 868-0922
B) 622-5147

드디어 판매개시!
감기는 만병의 원인! 건조한 아파트생활에 주의하세요.!!
日本제 최신형원심식 전자동 가습기

지방에 계신 분을 위해서 Mail order를 받습니다. 물건값+송금료를 수표로 보내주시면 즉시 보내드립니다.
가격 ——— US$79
카나다 $105(+송금료)
(株) 日本家電
NIPPON KADEN LTD, BO.
MODEL NO. V.—57D
물용량 : 5ℓ
연속가습시간 : 14시간



* 예방보다 더좋은 약은 없읍니다!
습도가 부족한 겨울철의 건조한 실내는 누구나 쉽게 편도선(목젖)의 불편함을 느낍니다. 특히 아이들은 늘 감기가 계속되며 피부도 건성이됩니다. 필수적인 습도유지로 각종호흡기 질환을 예방하세요.

* 최신형 전자동가습기의 특징
1. 소음이 전혀없으며 실내전체를 쾌적하게합니다.
2. 고장이 전혀없읍니다.(2년간보증)
3. 켜고 끄는 번거로움이 없이 최저습도 40%이하에서는 즉시 자동으로 켜집니다.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TORONTO, ONT.
B. 536-1692 R. 245-3539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사장등 5명 숨져

회사전용기 추락 불타

기업체 전용 쌍발 제트여객기가 11일 오후 욕(York)지역의 하이웨이 400과 스틸즈 애비뉴 부근 본·타운쉽(Vaughan Township)에 위치한 비치우드 공동묘지내 벌판에 추락, 이 비행기에 타고 있던 토론토의 석유회사 중역등 5명이 모두 불에 타 숨졌다.

추락한 8인승 세이버라이너 65기는 필라델피아를 떠나 토론토 국제공항으로 가던 중이었다.

숨진 5명중의 하나인 로스 헤니가씨(53)는 79년8월 선·오일·캐나다와 그레이트·캐내디언·오일·샌즈회사를 통합한 선코회사의 사장으로 선코는 온타리오주정부가 25%, 선·오일회사가 75% 소유하고 있다.

헤니가씨는 필라델피아에서 있은 회의에 참석후 토론토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 숨진 또 다른 4명은 선코 모(母)회사의 중역 2명과 조종사, 부조종사로 모두 거주지가 필라델피아 부근인 사람들로 이들은 헤니가씨를 토론토에 내린 뒤 연료를 재공급, 필라델피아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추락목격자들은 11일 하오 3시20분경 기체가 갑자기 한바퀴 돌며 땅에 곤두박질했다고 말했다.

캐나다 운수성 대변인 스미스씨는 추락의 원인이 날씨관계는 아니라고 말했으며 12일 현재 정확한 사고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선코회사는 18개월전 록웰인터내셔널 비행기 제조회사로부터 세이버라이너 65기를 사들였었다고 동회사 대변인이 밝혔다.

이번 사건을 포함 최근 2년동안 메트로에서는 3건의 소형기추락사고가 발생했다.

81년 7월 쌍발비행기가 토론토국제공항 이륙직후 추락, 조종사 3명이 숨졌다.

같은해 3월에도 쌍발 파롬맨체 비행기가 온타리오호수에 추락, 조종사 1명이 숨졌다.

1978년 6월 에어·캐나다소속 DC-9 제트여객기가 토론토공항 활주로 끝에서 이륙하는 순간 엔진고장을 일으켜 승객 2명이 사망하고 105명이 부상했다.

1977년 9월 팔롬부리치광산회사 소속 전용비행기가 베리(Barrie)에서 웰리비존송신탑을 들이받아 추락하는 바람에 이회사 중역 4명이 숨지고 조종사 1명이 사망했다.

1970년 7월 몬트리얼발 에어·캐나다소속 DC-8 여객기가 토론토국제공항에 착륙하다 사고를 일으켜 타고있던 승객 109명 전원이 몰사했다.

金聖鍾 작

<147>

출발 ㉘

비행기서 만난 요염한 女子와 호텔로…

『인연이란건 이상한모양이죠?』

여자가 불만지같은 말을했다.

『아까 공항에서 선생님을 봤거든요. 멋지게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란히 앉게 될 줄은 알았겠어요. 정말 기뻐요.』

그는 뜨끔했다. 그리고 경계심을 가지고 여자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일등석은 반쯤 자리가 비어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는 주위는 그들뿐이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자의 몸가짐이 갈수록 제멋대로 되어가고있었다.

그는 귀찮았지만 잠자코 여자의 추태를 받아주었다. 두시간을 지나자 여자는 완전히 그에게 몸을 기대왔다.

『이래도 괜찮죠?』

그녀는 허파부터 나오는 소리로 물었다.

『괜찮아요.』

그는 미소했다.

『나—파리 유학생이에요. 파리대학에서 프랑스문학을 공부하다가 집어치웠어요. 왜냐구요? 공부하기 싫어서죠. 공부란 정말 지긋지긋하게 하기 싫어요.』

『그럼 왜 유학을 갔지?』

그는 여자의 어깨를 감싸안았다.

『공부보다는 파리잡을하고 멋진 연애를 하고 싶어서였죠.』

『그래서 멋진 연애를 했나?』

『했어요. 셀 사이없이 했어요. 결과는 빈 껍데기뿐이에요. 아무것도…아무것도…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요. 이제는 모든것에 흥미를 잃었어요. 아시겠어요?』

『그저 야단이군.』

『싱거운 연애 따위는 이젠 흥미가 없어요. 첫눈에 반해서 만나서 이불로 모든게 이루어지는 말초적인 육체만의 사랑…마약을 한 때처럼 때와 같은 그런 사랑…난 그런게 좋아요. 부담없이 홀가분하게 헤어질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는 내가 계속 학교에 다니는줄 알고 돈을 부쳐주다가 나중에야 사실을 알았어요. 나는 지금 호출받아 가는거예요. 집에서는 공부 집어치우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신랑감 구해놨다구요. 호호호….』

그녀가 너무 자지러지게 웃는바람에 사람들이 모두 뒤돌아보았다.

『선생님, 나를 좀 구해주세요.』

『네? 이 위기에서 나를 좀 구해주세요. 난결혼하면끝장이에요.』

그녀는 갑자기 팔을 뻗어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정열적으로 키스했다.

그는 멈칫하다가 수동적인 자세에서 공격적으로 나갔다. 그는 길고 깊게 입을 맞추었다.

스튜어디스가 그들쪽으로 왔다가 그들의 정열적인 키스신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아랑곳하지않고 키스를 계속했다.

비행기가 나리따공항에 도착했을때 여자는 완전히 취해 거의 몸을 가누지 못하고있었다.

그는 여자를 껴부축하고 출국수속을 마치느라고 꽤나 애를먹었다. 도오꾜시내까지는택시를이용했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는 최고급호텔에 투숙했다. 침대가 두개있는 트윈이었다.

여자를 침대위에 뉘어놓고 겉옷을 벗긴다음 시트를 덮어주고나자 겨우 한숨돌릴 수가 있었다.

朴 男 그림

몬트리얼소식

정관성지국장

지국 주소는:
6715 P1 Villon
Brossad P.Q. J4W 2R8
전화 (514)672-8399

한인회 망년회 개최

200여교민 흥겨운 춤과 노래

몬트리얼 한인회(회장 정회수)는 지난 12월17일 교민을 위한 망년회를 개최했다.

저녁7시 김재권총무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망년회는 정회장 인사, 내빈 소개등이 있었으며 한인회이사임원부인들이 준비한 푸짐한 식사를 나누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때라 모든 스토어가 9시까지 문을 열어 10시 조금 넘어부터 많은 교민들이 합세, 약 200여명이 참석했으나 16세 미만의 자녀들은 참석을 하지못해 조금 더 많은 교민이 즐길수 없었던것이 아쉬웠다.

9시반 김현수씨가 인도하는 "다 같이 노래하자"에 이어 10시반 노인분들을 위한 한국고전춤으로 시작한 댄싱파티는 12살에 이민온 전훈병씨의 아들 영민군이 자기 캐네디언친구와 함께 기타로 정든 한국가요들을 들려주어 많은 박수를 받았으며 즐거운 춤의 반주가 되었다. 춤을 추는 틈틈히 각계에서 보내진 푸짐한 선물을 추첨했으며 1시30분 모든순서를 마쳤다.

이날 본사가 제공한 한국일보 토론토신문 1년구독권은 지난여름 파라파이에서 이곳으로 이민온 정의남씨가 탔다.

한인천주교회

성탄절 예배와 파티

한인천주교(신부김용효)에서는 25일 5시 김신부의 집전으로 성탄절 축하미사가 있었다. 한국신부가 취임한후 처음갖는 성탄절이라 더욱 의미가 있었다.

미사후 만찬을 나누고 약간의 여흥, 댄싱파티도 가졌다.

연합교회 어린이

한국말 음악극 공연

한인연합교회(목사 배한국)는 지난 25일 본교회에서 성탄절기념예배를 갖고 주일학교겸 부속한글학교 학생들이 수개월간 준비한 한국말 음악극 "거룩한 밤"에를 관람했다. 주일학교학생 전원이 출연한 이 극은 비록 선교사 같은 발음의 한국말이었지만 어려서 이곳에 왔거나 이곳에서 태어난 2세들의 연극이란 점에서 많은 박수를 받았다.

특히 이번 극을 계기로 연합교회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 조명기구등을 사들였다.

각 가정에서 마련한 만찬을 나눈 후,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가정들이 출연한 가정합창순서도 있었다.

한편 성가대(대장 고봉주)는 지난 18일 음악 예배를 가졌다.

성가대지휘에는 배신우, 반주에는 임은실양이 맡았었다.

장회장 자택에서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라이어티 가게를 경영하는 43세의 장회장은 지난해 12월 씨틸교회 강당에서 150여명의 교민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겸 연말파티에서 이영구씨의 뒤를 이어 83년도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제철도시인 해밀톤에는 123여가구에 500여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상훈 총영사와 이수신 외환은행전무등 많은 내빈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부회장–장근원
총무부장–정원규
기획부장–유 진
섭외부장–도철환
문화부장–청 먹
동부지부장–임영하
서부지부장–김차원
마운틴지부장–심봉명
오크빌지부장–박만기
부녀부장–김현숙

해밀톤 한인회

회장에 장홍규씨

(해밀톤)장홍규 해밀톤한인회 신임회장은 12일 83년도 첫 임원회의를 늦어도 1월 3째주일인 23일경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신임 무역관장 차영석

컴퓨타도입의 주인공

◆차영석 무역관장

지난 11월중순 몬트리얼주재 무역관장으로 부임받은 차영석씨가 지난 12월20일 이곳에 도착, 관장업무를 개시했다.

58년 법대를 졸업한후 오랜 군대생활끝에 예편한 차관장은 대한무역진흥공사 부산사무소장, 무역전산부장을 거쳐 몬트리얼 무역관장으로 부임했다. 특히 차관장은 지난 11월26일 한국무역진흥공사에 IBM컴퓨터 시스템을 도입, 시공식을 가졌었다.

차관장은 이 전산화를 마무리짓느라고 부임이 늦었다고 하며 앞으로는 한국도 많은 상업정보를 빠른시일에 입수하며 세계도처에 있는 무역업체들에 자세히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차관장은 갑작스런 부임때문에 아직 정리를 마치지 못해 같이 오지못한 부인과 사이에 2남을 두고 있으며, 두 아들은 같이 이곳에 왔다.

한편 지난 12월6일 이곳을 떠난 정명규관장은 79년 10월 이곳에 부임 3여년동안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특히 캐나다에서 한국상품 불모지로 알려져 있는 헬리팩스와 세인트·존스지역에 대우, 선경, 스텔라 핸드백사를 참석시킨 순회 세일즈쇼를 개최했다. 10월18일~23일간 개최한 이 순회세일즈쇼는 최초로 시도된 사업으로 신시장개척에 좋은 성과를 얻어 계약실적 US $854,850, 추진액 월5,567,000를 이룩했다.

정관장이 이임한후 공백기간동안 성과장이 맡아 연말 보고작성등을 맡아보았다.

〈매쉬〉 11년만에 막내려

한국동란 무대 TV영화

(LA)한국동란을 무대로한 TV영화 〈매쉬(Mash)〉가 제4077회 에피소드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11년동안 CBS의 화면을 통해 방영되면서 9년간 10대 최고인기프로로 꼽혔던 매쉬는 이번주 마지막회 촬영을 끝낸다. 2월28일 월요일 방영될 마지막회는 1953년 7월 3주간을 배경으로, 한국전이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내용이다.

〈매쉬〉의 제작을 맡고 있는 20세기폭스사의 버트·멧카프씨는 "극중에서도 한국에서 한동안 동고동락하던 사람들이 각자 뿔뿔이 헤어지지만 실제로도 그동안 같이 일하던 출연진들도 각각 흩어지게 되어 흐뭇하고 슬픈 느낌"이라고 말했다.

특히 핫·립스, 정열의 입술을 기진 여자라는 별명의 메이저 마가렛역의 로레타·스윗, 매눈이라는 별명을 가진 캡틴·벤자민·프랭클린역의 알란·알다는 11년째 계속 출연한 배우들이다.

아침, 저녁 수차례 재방송되는 11년간의 롱런 영화 〈매쉬〉의 흥행비결은 무엇인가에 대해 멧카프씨는 맨처음 〈매쉬〉를 시작했을때는 베트남 전쟁이 시작될 무렵이어서 베트남전에 대한 관심 때문에 북미 관객들에 어필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 社 告 —

구독료 15일부터 월$10

본〈토론토한국일보사〉는 신문제작비및 발송비보충을 위해 구독료를 현재의 연 99달러에서 연 110달러(선불)로 인상합니다.

15일부터 실시되는 이번 인상으로 월구독료는 종전 월9달러에서 월10달러가 됩니다. 반년 구독료는 55달러(선불)가 됩니다.

구독료인상은 1월중부터 있을 〈주간한국〉을 별도 인쇄하는 것과도 다소 관련이 있으나 주 원인은 15일부터 신문에 적용되는 2종 우편요금이 작년의 대폭적인상에 이어 다시 6% 가 오르는 때문입니다.

1월15일까지는 종전요금이 적용됩니다. 독자제위의 이해를 앙망하며 계속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새 구독료 ★

월	$10,00
연간(선불)	$110,00($10할인)
반년(선불)	$55,00($5할인)

—토론토 한국일보사—

빌리·마틴 양키즈와 3번째 결합

명물감독, 구단주와는 견원지간

이혼·재결합(?)으로 엮어진 스타인·브레너와 빌리·마틴은 이번에 3번째 결합, 앞으로 적어도 5년간은 헤어지지 않고 서로를 존경하며 사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의 약속이 얼마나 갈지 모르나 어쨌든 토론토야구팬들이 금년에 익스비션스타디엄에 가면 뉴욕·양키스의 백넘버 "1"의 유니폼을 입은 빌리·마틴 감독을 더욱 자주 볼수 있게 됐다.(블루제이스와 양키스는 아메리칸리그 동부조 소속)

작년도 성적부진으로 오클랜드·에이스에서 쫓겨났던 마틴감독은 한동안 앙숙이었던 양키스구단주 스타인·브레너와 10일 다시 만나 앞으로 5년간 시즌당 40만~50만달러를 받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빌리·마틴은 75년부터 78년 7월까지 양키스감독을 맡으면서 양키스가 월드시리즈를 제패하게 했다.

79년7월 스타인·브레너에 의해 또다시 감독으로 지명됐던 빌리는 80년 시즌이 시작되기도 전에 또 쫓겨났다.

마틴감독은 구장에서 심판들과 자주 싸워 퇴장도 당하고, 출전정지처분을 받기도 했고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시절, 교도소에서도 선수를 스카웃, 이 이야기가 영화화되기도 했다.

양키스의 마틴 재기용은 레기·잭슨등이 떠난후 양키스의 관중수는 점점 떨어졌고 작년도 성적도 아메리칸리그 동부조 5위를 밀려나는등 인기하락을 막으려는 구단주의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굴지의 조선업을 갖고 있는 스타인·브레너구단주는 독설과 악평으로 유명하다. 갑작스럽게 "너 나가(You're fired)"하면 그것으로 선수나 감독은 끝장이다. 브레너는 돈은 생각안하고 선수를 스카웃하기도 하고 내쫓기도 한다.(선수를 쫓아내도 계약기간이 남았으면 봉급을 지불.)

마틴감독의 기용은 떨어진 팀의 인기 만회와 함께 라이벌 메츠팀의 움직임에도 원인이 있다.

전 양키스 투수로 활약했고 사이영상, 20승투수등으로 뉴욕팬의 인기를 차지했던 톰·시버가 신시내티·레즈를 떠나 뉴욕·메츠와 계약, 뉴욕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구단주 스타인·브레너에게 삿대질하고 있는 빌리·마틴. 둘의 사이는 앙숙이었으나 5년간 재계약에 성공, 마틴은 3번째 양키즈 유니폼을 입게 됐다.

사경회 안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라. (신명기 30: 19~20)

일시 : 1983년 1 월21일(금)~23일(일) 매일 저녁 7 시30분부터
장소 : 성도교회당 ☎ : 745–7370
87 Elmhurst Dr.
(Islington & Elmhurst)
강사 : 김용출 목사
(토론토제일장로교회 시무)

성도교회
김용진 목사

천부교전도관

새해를 맞이하여 이기신 우리하나님의 은혜가 이땅 캐나다에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카나다에 거주하시는 천부교전도관 식구들을 찾고 있읍니다.

먼저 전화를 주세요.

☎ : (416)745–7463
MR. 송

YAMAHA
건반악기 Porta Sound
Beginners sound great in minutes.
MOZART MUSIC CENTRE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30
LUCAS YUM 윤 호 섭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883-9407
ALLEN DUMA

한국인이 경영하는 홍콩 스타일 전문
Rose Garden Restaurant
■Free 주차장
■각종 술 full-licence 취득
■주문시 배달합니다.
■매일(년중무휴)
오전 11:30~새벽 1:00까지
538 St. Clair W. (세인·클레어×베다스트)
656-0456
유 창 준 654-6609

중앙고교 동문께 알림

모교에서 정신때 선생님 토론토 방문 환영 디너파티에 초대합니다. 동문 여러분 한분도 빠지지 마시고 부부동반하시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3년 1 월14일(금) 저녁 7 시
장 소 : 크림톤 하우스 693 Bloor St. W.
연락처 : 회 장 함태민 248-5131
부회장 한무용 293-2399
총 무 강 용 638-1382

중앙고교동창회

실협뉴스
K.B.A. NEWS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627A BLOOR ST W
TORONTO ONT M6G1K8
533-7923 4
COMPLAINT CENTRE
(HOTLINE)
533-8344

83년도 1차 정기이사회
이사장에 서준경씨

83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가 1월6일 밤8시에 Inn on the Park 호텔에서 개최됐다.

총 51명의 이사중 43명이 참석한 이날의 이사회에는 이형인, 이근우 자문위원과 김근철 「배리」지구 실협회장 그리고 협회 집행부 임원들이 참석했다.

Convenience Store 경영자 위주로 구성됐던 이사회가 금년에는 여타업종 경영자 10명을 신이사로 영입하였고, 해밀톤과 오샤와지구에서 각 한분씩을 이사로 맞이한 것이 새로히 구성된 83년도 이사회의 특징이다.

참석자 전원에 대한 이춘수 총무이사의 개별적인 소개가 있은후, 차선겸 회장은 창립 10주년기념행사계획, 협동조합의 추진현황, Dental 단체보험의 실현, 잡지의 진열수당(R.D.A.) 진행상황, 여타업종의 협회가입 증가등 상세한 업무·재정보고를 한후 협동조합의 탄생을 보게되는 중요한 이 시점에 여러 이사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과거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신임 이사장선출에 앞서 김태진 이사장이 지난 3년간 여러 이사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협회가 장족의 발전을 하였고, 따라서 대과없이 소임을 완수하고 물러나게 됨을 감사한다고 말한후, 만장일치로 김태진 이사장을 임시의장으로 선출, 이사장 선거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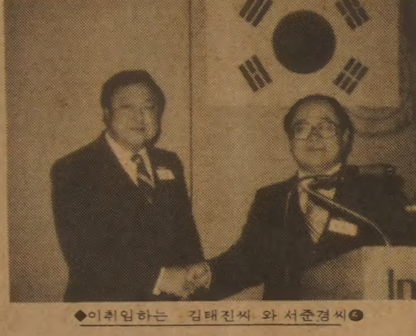
무기명 추천으로 다수득점자 3명의 후보(서준경, 백경락, 송재규)를 놓고 투표한 결과 서준경씨가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앞으로 1년간 실업인협회 이사회를 이끌고 가게됐다.

신구 이사장의 인사(별항참조)에 이어 굳은 악수를 교환함으로서 이사장의 바톤은 인계되었다.

퇴임하는 김태진 이사장, 백경락 부이사장, 이춘수 총무이사, 이학현 서기이사에 대한 노고를 박수로서 치하하였고, 특히 김태진 이사장의 퇴임인사시에는 전이사가 기립박수를 보냄으로써 지난 3년간의 그의 공적을 치하했다.

이어서 감사위원에 서동준, 현영일, 박남희씨, 선거관리위원에는 장추국, 박광철, 한천석, 원종필, 김판영 제씨가 선출됐다.

한편 지난 10월에 제출된 김이열 부이사장의 사표도 이날 정식으로 수리됐다.



◆이취임하는 김태진씨 와 서준경씨©

치과 단체보험 계약단계
월 개인당 $10, 가족 $32

근 1년간의 끈질긴 노력끝에 Crown Life Insurance Co.와 치과단체보험의 계약체결을 위한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지금까지 합의를 본 내용은 치아 치료에 있어서의 모든 비용을 년 1인당 $1,500까지 100% 지불해주는 보험으로 대상은 실업인협회 회원과 그의 가족(자녀) 그리고 종업원에 한한다.

보험료는 개인당 월 $10, 그리고 가족당 $32로써 첫 3개월분은 한번에 지불하고 그 이후는 은행을 통해서 자동인출된다.

협회 Lawyer와 최종검토를 거쳐서 계약이 체결되면 "실협뉴스"의 광고란에 게재하는 신청서에 기입하여 협회로 우송하면 보험회사와 직원이 신청회원께게를 방문하게 된다.

치과보험은 의무적이며 다음에 회원의 지망에 따라 OHIP을 제외한 의약품보험(개인 $8, 가족 $20), 해외여행중의 의료보험(개인 $1, 가족 $2), 생명보험(보험료 책정중)을 추가로 들 수 있다.

치과단체보험은 특히 자녀들을 거느리고 있는 회원들이 불시에 거액을 지불해야하는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회원들이 상담실을 통하여 요청해온 사항으로써 이 계약이 체결되면 거의 전회원이 참여하여 큰 호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보험의 내용에 대하여 치과의사 윤충태씨는 "치과보험에 가입하면 가입자(Subscriber)와 배우자(Spouse) 그리고 Children 즉 학생인 경우 21-25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Single로서 가입을 원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다. 치료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1년에 1개인당 최고(Maximum) $1,500까지 100%이며 치료받을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개월마다 진찰받을 수 있으며, Scaling(스켈링), X-rays, 불소도포, 모든 종류의 Fillings(충전)(단 Gold Fillings은 제외), 치아 발치, 치주치료(잇몸질환 치료), Space maintainers, 신경치료(Root canal therapy), 현존하고 있는 Dentures(의치)의 수리이다. 여기서 포함 안된것은 교정치료(Orthodontic Treatment)와 보철치료(Crowns, Bridges and Dentures)이다. 다른 치과보험에 비교, 비교적 좋은 조건이다"고 말했다.

신년인사
회장 차선겸

◆차선겸 회장

존경하는 900여 실업인협회 회원 여러분!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여 협회의 임, 직원일동을 대신, 회원 여러분께 삼가 세배를 올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사업들이 축복속에 성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매월 수백의 Small Business가 파산을 하였던 지난해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실협회원들은 큰 곤경없이 건재함을 볼때 감사함과 아울러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부족한 저희들 집행부가 여러분들이 아끼시는 「실협」의 살림을 맡은지도 1년의 세월이 지났읍니다.

때때로는 시행착오도 있었으며 회원 여러분의 문제점이나 아쉬운 점을 시원히 해결해 드리지 못했던 나태함도 있었으며 또는 여러분의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기에는 협회의 「힘」 자체가 미약하여 고심하였던 때도 있었던것 같읍니다.

그러나 회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협조에 힘입어 벅찬 편성이었던 예산집행도 순조로우며 일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무려 50% 이상의 회원증가 현상을 볼때 여러분의 협력에 재삼 감사드리면서 함께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1983년은 우리들의 「실협」이 이땅에 초석을 놓은지 열번째 돐을 맞는 뜻깊은 해인 반면 그 결실인 「협동조합 설립」, 「One Billing System의 조직화」, 「창립 10주년 실협의 밤」등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산재해 있읍니다.

미력이나마 남은 임기동안 저희들의 열과 성을 다하여 전력투구 함으로써 협동조합 설립이 그 결실을 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아직은 상호협조 무드속에서 모든 것이 순조로우나 그 설립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설립 이후라 하더라도 이곳의 기존 유태계 도매상인들의 공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라 생각됩니다.

오랜 세월동안을 갈망해오던 우리들만의 조합설립과 그 성공여부는 오직 우리들의 「단결」에 그 기초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 지상을 통하여 「실협」의 얘기들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읍니다.

저희들 「실협」은 지금껏 교포사회의 큰 단체로써 가능하면 조용하고, 가능하면 화목하기를 원했읍니다.

그러나 어떤 개인이나 기관 또는 어떤 단체이던 건강하게 자라나는 우리의 실협에 자신들의 조그마한 이해를 위하여 돌을 던지는 사례는 구백 회원의 이름으로 단호히 규탄되어야 할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다시한번 자중하시고 다시한번 단결하십시다. 최근 교민의 수가 증가되고 경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인근의 경쟁 상점 신설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읍니다.

그간 협회는 나름대로 고심하여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노력을 하였읍니다만 서로의 이해가 직결되어 있는 상도의의 문제에는 상당한 고충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협회는 기존회원들의 보호라는 강력한 기본원칙하에 범교민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동시에 다각적인 채널을 통한 로비(Lobby)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비록 단시일내에는 그 성과를 거두리라고 기대할 수 없으나, 정부의 허가문제에서 그 해결을 찾으려 적극 시도해 보겠읍니다.

끝으로 회원 여러분의 가정 가정마다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면서 새해의 인사에 대합니다.

취임사
서준경(신임이사장)

금년은 실협을 위하여 여러 면에서 중요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곧 1천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게 될 것이며, 전체 회원의 숙원사업인 협동조합을 탄생시키어 실질적으로 많은 이익을 회원들에게 환원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동안의 주업종인 "코너스토어" 분야로부터 교포사업체의 다른 분야로 그 조직을 확대하여 감으로서 실협의 사업분야를 다양화하는 기초를 닦는 해로써, 이번 이사회의 구성을 보더라도 5분지 1이상의 이사가 기타업종의 대표적인 분들로 구성된 것을 보아도 앞으로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협의 성장이 곧 교포사회의 발전에 직결된다고 생각할 때 금년은 더욱더 존경하는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이사여러분의 헌신적인 기여가 크게 요청됩니다.

그동안 실협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신 여러분, 특히 김태진 전이사장님의 노고를 이자리를 빌어 치하드리며,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아 힘에 겨움을 느끼나 여러분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으시리라고 굳게 믿고, 미력이나마 성심껏 봉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이 희망에 찬 여러분의 해가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임사
김태진(이사장)

금년은 실업인협회가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생각하면 저희 실업인협회가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실협으로 성장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대로 저희 협회에는 이사님들의 숫자만도 51명이고, 산하에 해밀톤, 오샤와, 배리지구를 갖게되었으며 년예산이 22만불에 조만간 회원이 1,000명을 상회하게 될 것이며, 금년중으로 우리의 Wholesaler인 협동조합이 구성되는 시점에 놓여있어 명실공히 큰 단체인 실업인협회가 되었읍니다.

협회가 오늘의 큰 단체로 성장한 것은 회원전원의 협조와 단결력의 소산이며, 역대 회장단과 임원 그리고 역대 이사님들의 노력의 결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협회가 급성장하는 것은 현회장단및 집행부의 끈덕진 노력과 뒤에서 말없이 밀어주신 여러 이사님들의 땀의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훌륭한 단체의 이사장으로서 지난 3년동안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것과 또한 대과없이 저의 소임을 다하고 또 임기를 마치고 오늘 이자리를 기쁘게 물러가게 된 것은 저자신의 영광이 아닐 수 없읍니다. 저의 오늘의 영광을 이자리에 계시는 여러분과 저를 아껴주시던 회원전체에게 돌리고져 합니다. 특히 백경락 부이사장, 이춘수 총무이사, 이학현 서기이사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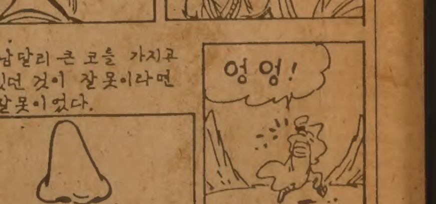
끝으로 존경하는 회원여러분과 이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복되시고, 사업번창하시고,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신규) 년$99. 월$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
각종김장김치 주문환영
해밀톤지점 ☎ 1-385-1485
서부지점 ☎ 243-9544

적은 비용으로 알찬효과를 보는 한국안내광고란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병헌



근하신년

실업인협회의 문호가 활짝 열림과 동시에 여러분야의 사업에 종사하시는 실업인제위께서 많이 가입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새해의 사업번영을 축원합니다.

모든분야의 회원전체가 상부상조하여 실협의 원대한 발전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구성 하오니 더욱더 많은 동업인들이 실협의 대열에 참여하시도록 권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아침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명예회원
- 카나다한국외환은행 …… 최승나
- 토론토 한인신용조합 …… 한상훈
- 한일은행 토론토사무소 …… 한철환
- 조흥은행 토론토사무소 …… 이원순

◆도나쓰업
- Honey Dip Donut …… 강준남
- Donut Shack …… 조충원
- Health Bread Bakery …… 배용빈
- Bentley's Donut …… 정영식
- Donut Castle …… 호민식
- Fun Donut …… 양운택
- Royal Donuts …… 이양섭
- Dutch Mill Donuts …… 강영자
- Smile's Convenience Deli …… 박원용
- Dominion Donut …… 전문식
- Crescent Town Ice Cream Parlour …… 김신기
- St.George Donut Shop …… 최장복

◆요식업
- Oriental Castle …… 최기주
- Mr. Choi's Restaurant …… 최영호
- Arirang House …… 장순채
- Mini Bar …… 최정희
- Sammy's Restaurant …… 서동춘
- High Park Submarine …… 강용중
- Foster Cafeteria …… 이영식, 이순자
- Korean Village Restaurant …… 이기항
- The Big Turtle …… 이한영
- Village Chicken Place …… 이종소
- First Korean Food Trading …… 김덕기
- Clouseous Cafeteria …… 김선영
- Lucas Cafeteria …… 이윤현
- Century Burgers …… 유광한
- Huronia Restaurant …… 임윤호
- Big Mack's …… 장추국
- Forest Glen Appetizer …… 정병조
- Continental Cafe …… 서동준

◆식품업
- P.A.T. Supermarket …… 김흥우, 이순복
- H & D Quality Meats …… 최영진
- Barton Premium …… 이민복
- P.A.T. Oriental Food Market …… 손영곤
- W.S.K. Food Market …… 박인조
- Forest Glen Seafood …… 임호빈

◆농식물업
- Millwood Flower Shop …… 원장호
- Dowes Florist …… 이동환
- Amari Fruit & Flower Shop …… 김진배, 이동승
- Kennedy Florist …… 김중일
- G & B Fruit Centre …… 김희삼
- 한국농원 …… 박수영

◆세탁업
- Kay Cleaner …… 강춘자
- Nu Look Cleaner …… 이현태

◆인쇄업
- Clover Printing …… 위정남
- Sunborne Products Ltd. …… 이인용
- Top Printing Co., Ltd. …… 박종남

◆의약업
- Dr. Wang Yun-Lin …… 왕운림
- Dr. Choong T. Yoon, Dentist …… 윤충태
- Asian Health Food …… 조지섭
- Harbin Herbs …… 서춘봉
- Bo-Kwang Herbs …… 김남길

◆써비스업
- Seoul Travel Service …… 최동주
- Best Travel Service …… 유지원
- Korea Travel Service …… 심사윤
- Kim-Kor Insurance Broker …… 김종조
- Chan Yeung Kang …… 강찬영
- Kyung Lee & Co. …… 이경복
- Choi Accounting …… 최태권
- Kim & Associate …… 김명숙
- Young I. Hyun …… 현영일

◆수리시설
- Miracle Maintenance Corp., Ltd. …… 배형도
- Bloor & Bathurst Hardware …… 변의섭
- Champagn Collision …… 이광한
- Citylite Signs Co. …… 홍진표
- Fine Design …… 조덕남
- O.K. Auto Body …… 김희삼
- College Pro-Hardware …… 강창홍
- Lee's Air Con & Refrigeration …… 이황영
- East West Market Exchange Inc. …… 최호영

◆가구·기구
- Korean Video Centre …… 손병헌
- Albion Art Gallery …… 박승용
- Wayside Art Gallery …… 김길수
- Academy T.V. & Stereo …… 전광재
- Canaan Drapery Co. …… 유원덕

◆의상·미용
- Country Blue …… 임분옥
- Canada Mink Centre …… 류동훈
- Maya Beauty Salon …… 김금순
- Star Beauty Salon …… 김창업

◆태권도
- Park Bros. Taekwondo Institute …… 박주삼
- Hwarang Taekwondo Institute …… 서정길

◆부동산
- Paul Kim, Canada Permanent Trust …… 김 평

◆선물·보석·운동
- Hi-Laud News …… 오상길
- Munami Trophy & Sports …… 이기훈
- Geo Bu Gi Trading Co. …… 이정석
- Brandon Sports Ltd. …… 이천영
- Big Seven Trading Co. …… 김영철
- Oriental Bazaar …… 최마자
- Oriental Bazaar …… 이정자
- Terra Trading …… 장추신
- Sharkey's Tobacco Emporium …… 최영식
- Guardian Smoke Shop …… 정승은
- Olympia Square Gift Shoppe …… 홍기만
- Coronet Card Shop …… 신영철

◆해밀톤 지역
- Dairy Queen …… 표봉길
- Mingtree ……
- Home China & Gift …… 신유식
- Dental Office …… 원영수
- Gas Station …… 이한용
- Carlton Tavern …… 오승탁
- Han Bat Sikpoom …… 임수철
- The First Korean Food …… 김덕기
- Korean Farm …… 박수영
- Chung's Niagara Farm …… 강독선
- Nishi-Kim Health Institute …… 김형봉

한국일보

法大·醫大 選好 지나치다

退職공직자 就業제한企業 곧 告示
外形3백億이상 3백70개

退職공직자의 私企業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령에따라 정부는 8일 就業제한대상기업체의 선정작업에 착수, 작업이 끝나는대로 年間外形去來額 3백억원이상의 3백70여개 大企業의 명단을 告示할예정이다.

재산등록대상공직자 (3급이상, 檢警이상, 5급이상稅務공무원, 국영기업등 公職有關단체의 任員) 전원에게 해당되는 이 취업제한제도는 특히 경제部處소속 고위공무원과 稅務·民願관계공무원에게 엄격히 적용될예정이며 특히 商工관계공무원이나 세무관계공무원출신 퇴직자는 앞으로 고시될 취업제한대상기업의 대부분에 취업제한이 해당될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자가 營利私企業의 재산상의 利權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수있는 업무를 수행할때 이들 기업과 밀착되지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수있도록 하기위한 이제도가 적용되는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과 그시행령에 따른 재산등록대상자 전원인약 6천명으로 정해져있는데 행정부소속 就業제한대상자는 약 4천9백명으로 年間퇴직률을 9%로 잡을경우 1년에 약 4백50명이 실제로 취업제한을 받게될것으로 알려졌다.

취업이 제한될 私企業과관련이 있는 공직자의 업무는 ▲재정보조업무▲認可 許可 免許 特許 승인등에 관계되는업무▲생산방식 규격 經理등에대한 검사, 감사에 직접관계되는 업무▲租稅의 조사 부과 징수에 관계되는업무▲工事 물품구입의 계약 검사 검수에 직접관계되는 업무▲法令에 근거해 직접감독하는 업무▲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수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등으로 규정돼있다.

한편 취업제한대상 기업에의 취업을 희망하는 퇴직공직자는 행정부소속 공무원의 경우 국무총리가 위원장, 총무처·내무·재무·법무·국방·문교장관등이 위원이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취업승인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하게 돼있어 이윤리위원회가 이제도의 成敗를 가름하는 중요한역할을할 것으로보인다.

이위원회는 취업금지 위반자에 대한 解任을 해당기업에 요구할수있게 돼있으며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기업체장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돼있다.

全黨대회 準委구성 국민당

국민당은 8일 오는1월말로 예정된 全黨대회를 준비하기위한 全黨대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한편 오는17일 상오 첫회의를 소집 全黨대회에필요한 제반사항을 논의키로 했다.

이날 人選된 전당대회준비위원은 다음과같다.

申喆均사무총장 (위원장) 曺德鉉(부위원장) 金永光·金遺腹·金鍾河·金永生·金完泰의원 (이상院內) 趙顯相중앙위의장, 柳凡秀 全北道支部위원장, 趙啓直 사무차장 (간사)

벨기에 外相 내일 韓國에

레오·틴데만스 벨기에 외상이 李範錫외무장관 초청으로 10일부터 13일까지 3泊4일간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한다.

틴데만스 외상은 11일 李장관과 韓·벨기에 외상회담을 갖고▲한반도 정세와 벨기에의 對韓반도정책▲韓·벨기에 협력에 의한 中東및 아프리카지역 공동진출문제▲우리나라 중소도시間의 자동전화시설에 벨기에의 참여문제등 양국의 공동관심사들을 협의한다.

政府,「헤이그私法회의규약」가입추진
商去來 새情報입수

정부는 한국企業들의 해외진출이 증대됨에따라 국제商去來상의 문제점과 새로운정보를 신속히입수하고 국제協約에의 참여를확대한다는방침에따라 내년에 국제商去來法에관한 3大기구중 우리가 유일하게 참여치못하고 있는 「헤이그국제 私法회의의 설립規約」에 가입할 방침이다.

외무부의한관계자는『헤이그규약회의에서는 국제商去來法위원회가 채택한 기본적인 협약의 범위안에서 「商事대리인에관한 협약」등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게된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개발은행 (IBRD) 국제상업회의소(ICC)를 포함, 20여개의 주요국제기구가 참여하고있기때문에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흐름과 국제商去來에 관한 새로운 法制및 정보를 알기위해선 헤이그규약에의 가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헤이그규약의회원국은현재 50개국으로 미국을 비롯한西方선진국과 소련을 비롯한東歐圈국가들의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으나 아시아지역에서는 일본만이 가입하고있는실정이다.

이규약에 가입하게되면 회원국은 開發정도에따라 分擔金을 납입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분담금은 가장적은 6천달러가될것으로 알려졌으며 외무부는 年初에 예산부처등 국내조치를 끝낸뒤 가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들어 처음으로 3黨대표들이 모여「새해의 政治」방향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李載灐民正黨대표 (左로부터) 金鍾哲 국민당총재, 柳致松民韓黨총재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政治議案 광범논의
3黨대표會同 地自·和合조치도

民正黨의 李載灐대표위원, 民韓黨의 柳致松총재및 국민당의 金鍾哲총재는 7일하오 7시 서울플라자호텔에서 모임을갖고 새해政局의 추이와 地自制·국회법등 이른바 정치의안의 처리문제와 특히 국민화합적 차원에서의 일대 조치에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3당대표회담에서 李民正대표는 지난 1년간 어려운일이 많았는데도 각정당이 대화를 통한 수습과 타결에 노력해온 것을 民正黨은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柳民韓黨총재는『새해는정치발전을 위한 결실의 해가 돼야한다』고 강조하고 民韓黨이 주장해온 정치의안에대해 조속한 후속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金국민총재는『작년 각당 총무들이 약속한대로 地自制등의 실현으로 확실한업적을 쌓아 올릴수있는 해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李民正대표는 이날 회담이 끝난뒤 柳民韓·金국민총재등이 촉구한 地自制실시·국회법개정등에대해『총무등당직자회담서 時限까지 정했기때문에 각이유의해 왔다』고 말했다.

이날 3黨대표들은 각당의 지구당개편대회가 끝나면 다시 한번 회동키로했다.

"1급頭腦 偏向 큰손실"
具서울시교육감 自然科學系진학 권장

우리사회의 法大, 醫大선호도가 너무심하다. 고교를 졸업한 수십만명의 대학진학자중 정예그룹의 대부분이 두大學으로 몰리고있는것이다. 지난날에도 시속에따라 대학선호도의 부침이 없었던것은 아니나 현행 대입학력고사제도가 생긴 81년이래 3백점이상의 세칭 秀才들이 「폭발적인 유행」처럼 法大나 醫大로만 몰려 불필요한 경쟁을 벌이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각계인사들은 판·검사나 의사가돼 개인적인 성취감을 달성하는것도 좋으나 사회전반이 고르게 발전하려면 1급두뇌들이 각분야로 골고루 퍼져나가야 균형있는 사회발전이 가능하고 격심한 기술혁신을앞둔 국제경쟁에서 지지않기위해서도 우수한 인력이 자연과학계열등 보다생산적인 방향으로 많이진출해야 한다고 지적, 학부모와 수험생들에게 맹목적인 法大, 醫大선호경향에서 과감하게 벗어나라고 당부한다.

法大, 醫大선호도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지난82년의 경우 서울법대 신입생의 평균점수가 3백7.5, 의예과가 3백4.6으로 두과의 정원 6백24명은 3백점이상 고득점자 8백27명의 75%선이었다. 올해는 3백점이상의 고득점자 6천3백78명중의 상당부가 또다시 두대학에 몰려 상인적이고 비경제적인 경쟁을 벌일 전망까지 나온다.

이같은 法大, 醫大선호 현상은 졸업하면 판·검사나 변호사, 고위공무원이 되거나 의사가돼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살수 있다는 배금주의사상 탓도 있고 『한집안에 법관이나 의사는 꼭 있어야 한다』는 일부학부모의 시대착오적인 집념이 만들어내는 것.

이때문에 서울大등 세칭일류대학의 법대나 의대에갈수없는 고득점자들중에는 학교를 낮춰『어느대학도 좋으니 법대나 의대를가겠다』는 식으로 지망하는경향마저 생겨 개인적으로는 학문에 실패하고 국가적으로는 우수인력의 손실이라는 바람직하지못한 결과를 빚고있다.

이에대해 교육계에서는 이같은 선호사상은 일제의 잔재로서 이미 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다양하게 발달한 요즘에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지적, 우수한 사람이 적은분야나 유전공학같은 미래학문 분야에 우수한 자제들을 보내는 결단을 내리는게 현명하다고 충고한다.

하계의 이같은 지적에도불구하고 법대나 의대지망현상은 금년에도 여전하다.

서울K고교의경우 졸업생중 60명이상의 고득점자들이 법대·의대를 지망하고있어 작년에비해 2배정도의집중현상을 보이고있고 2백20점~2백50점대의 학생들도 지원대학의 수준을 낮추어서라도 법대 또는 의대에 지원하려는 경향을보이고있다.

서울大, 高大, 延大등 주요대학들의 원서접수가 시작된 8일이후부터 시내 각고등학교 교무실에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몰려들어 학생의 적성, 가정형편등의 이유를 들어 진로를 바꾸어주려는 진학담당교사들에게 한사코 법대, 의대의 원서를 써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이 보였다.

서울大光고교의 진학지도담당 金裕貞교사 (41)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수년전부터 적성이나 가정형편, 수학능력등을 전혀 고려하지않고 법대, 또는 의대를 지망했다가 중도에서 학업에 재미를 잃고 실패한경우나 적성에맞는 과를 선택했더라면 충분히 합격할수있는 경우에도 적성에맞지않는 법대, 의대를 지망했다가 낙방한경우등 실패한 예를들어가며 진로를 바꿀것을 지도하고있지만 막무가내로 법대, 의대원서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에게 오히려 핀잔을 듣는 경향은 수험생쪽보다도 오히려 학부모들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보사부 의정국장 李展雨씨는 의사의 현정가기가 6~10년이상 적당한 세일이걸려 현재의 의대지망생들이 졸업하거나 전문의과정을 마칠때쯤이면 의료보험과 공공의료망의 완성등으로 의술의 사회적기능이 크게 강조되어 지난세월처럼 의사들의 치부할수있는 기회는 점차로 감소할것으로 본다고밝히고 보다 현실적으로 판단하는게자신을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될것이라고 밝혔다. 〔金薰기자〕

先進國풍조變化 尖端技術등택해

서울시교육위원회는 8일 대입학력고사의 고득점자들이 국가발전을 위해 자연과학계열로 많이 지원하도록 진학지도를 하라고 일선학교에 지시했다.

具本錫교육감은 이지시에서『대학입시에서 매년 고득점자들이 법대나 의대로 몰리는 경향이 두드러지고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선 기초과학 분야와 첨단과학 분야에 우수한 인재가 지원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具교육감은『선진외국에서도 법대·의대의 선호도가 점차 줄어들고 대신 전자공학·핵공학·생물공학등 첨단과학과 기초과학에 많은 인재가 몰리고있어 우리나라도 이분야에 많은 인재가 필요할 때가 왔다』고 말하고『수험생의 장래를 위해서나 국가의 발전을 위해 2천년대를 내다볼수있는 분야에 지원하도록 지도를 하라』고 지시했다.

西獨議會 해산
카르스텐스 大統領 早期總選 길터
콜首相 信任투표敗北후 3주만에

【본AP聯=聯合】카를·카르스텐스 서독대통령은 7일 의회를 해산, 오는 3월6일 조기총선을 실시할수있는 길을 터놓았다.

카르스텐스대통령의 이같은 조치는 헬무트·콜수상이 지난해 12월17일 하원신임투표에서 고의로 패배한지 3주만에 취해진 것이다.

카르스텐스대통령은 이날 늦게 리하르트·슈튀클렌하원의장에게 공식서한을보내 자신의 결정을 알린뒤 이날밤 전국TV연설을 통해 이를공표했다. ☆해설2면

駐韓 아르헨大使 베니테스氏 임명

아르헨티나 정부는 알프레드·폰스·베니테스씨를 제7代駐韓대사로 임명했다고 외무부가 8일 발표했다.

베니테스대사는 外務省기획실장, 駐헝가리대사등을 역임한 직업외교관출신으로 정부는 지난해 12월 아그레망을 부여했다.

憲法개정 서둘러 日自民黨

【東京AP=聯合】일본집권 자민당은 금년에 군대의 보유를 금지하고있는 현행헌법의 개정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기위해 대규모운동을 전개할계획이라고 일본共同통신이 보도했다.

共同통신은 자민당내 소식통을 인용, 자민당헌법연구위원회가 지난1946년 美軍의 일본통치당시 채택됐던 현행헌법의 개정안을 올 6월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酷寒속 신바람童心

◇20여일만에 찾아온 겨울다운 추위에 추수가 끝난 논이 꽁꽁 얼어버렸다. 어린이들이 그동안 손질해 두었던 썰매를 꺼내 신나게 얼음을 지치고있다. 【경기楊州邑=李昌淳기자】★記事11면

社會漫評

얼리기로…

地平線

월남전이 한창이었던 60년대말엔 쿠바행여객기 납치사건이 극성을 부렸다. 70년대 중반에들어 무대는 중동으로 옮겨졌다. 공중게릴라와 일본의 적군파까지 끼어들어 하늘의 안전을 뒤흔들어 놓았다. 그때 하이재킹의 원인은 대부분 정치와 이념때문이었다. 각 공항의 검문·검색이 대폭 강화되었지만 공중의 무법자들은 더 활개를 쳤다. 이 먹구름을 가라앉힌 것은 단호한 특공구출작전이 잇달아 성공하고서 부터다. ▼1976년 7월 이스라엘특공대가 벌인 우간다의 엔테베공항기습은 인질구출작전의 古典이 되었다. 電光石火같은 솜씨에 세계는 통쾌감에 젖었었다. 77년10월엔 서독특공대가 소말리아 모가디시오공항에서 침착하게 또 인질구출에 성공했다. 다시 78년2월엔 이집트가 키프로스에서 희생을 치르고 15명을 구해냈다. 폭력엔 응징만이 최고의 수단임을 보여준것이다. 잇단 하이재킹이 좀 잠잠해지더니 78년 여름엔 시얼뚱한 소동이 일어났다. ▼해프닝의 무대는 제네바공항. 뉴욕을 떠난 TWA 점보기가 스위스경찰과 9시간 가량 대치했다. 여객기안에서 영화를 상영하기위해 소등한 사이에, 여자 승무원에게 20페이지에 달하는 메시지가 전달 되었다. 서독에 수감된 전 나치 부총통 루돌프·헤스와 로버트·케네디 저격범인 서한등을 데려오지 않으면 기내에 장치한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협박이었다. 9시간을 버텨도 범인은 아무런 반응이나 흔적도 없었다. 승객을 안전하게 내려놓고 기내를 샅샅이 뒤져 보았지만 콧수염, 안경등 변장기구만 발견 되었다. 어처구니 없는 한토막 미스터리였다. ▼뉴욕을 떠난 KAL이 東京에 不時着했다는 보도에 가슴이 철렁해졌다. 비행기안에 폭발물을 장치했다는 연락을 받고 비상착륙을 한것이라고한다. 다행히 아무런 사고없이 승객들은 서울로 돌아왔다. 일본경찰은 허위정보를 보낸용의자로 중국계 캐나다인을 공중납치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한다. 「나보다 사악한 놈이 있어 경고장을 보냈다」고 횡설수설한다는 정신이상의 의심이 가지만 아무래도 뭔가 석연치는 않다. ▼TWA나, 혹시 KAL의 안전도를 바라는 사건같은 해프닝이기를 바라는 심정이 간절한 것이다. 한시라도 하늘의 안전벨트는 잠시도 풀어 놓을 수 없음을 새삼 일깨워준 사건이라고 생각해 본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구인, 매매, 렌트등 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각종 비지네스 정보도 한국안내광고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0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지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맛사지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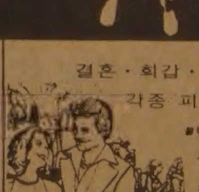
새해도 더욱 정성껏 모시겠읍니다.
최근도입된 인기절정의…… 비데오

●비데오기계및녹화기판매
100% AFTER SERVICE
●600여각종비데오대여
678 BLOOR ST. W. ☎:532-0210
한국비데오센터 대표 손병헌

Grant Brown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한구 ☎:247-7161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금.토.일 저녁
월 화 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최악의 不況 새突破口로

西獨議會 해산의 배경

카를·카르스텐스 西獨대통령이 7일 의회해산을 발표함으로써 서독은 헬무트·콜수상의 구상대로 오는3월6일 조기총선거실시의 길이 트였다.

일부에서 「위험한 先例」라는 우려가 나도는 가운데 강행되는 이번조치는 콜수상이 지난해 12월17일 하원 신임투표에서 고의로 패배한지 3주만에 취해진 것이다.

지난해 10월1일 헬무트·슈미트 前수상에 이어 집권한 콜수상은 취임하면서 다음 정기총선을 2년 앞당겨 실시하겠다고 다짐했었다.

서독이 당면한 최악의 불황에 대처할 단호한 조치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보다 폭넓은 권한위임이 필요하다는 것이 콜수상의 조기총선 취지이다.

현재 서독은 9.1%의 기록적인실업률(약2백20만명)을 보이고 있는데 이같은 경제불황이 서독 건국34년 사상 가장중요한 사건중의 하나로 손꼽힌 조기총선실시라는 정치적 異變을 낳게했다.

따라서 총선의 최우선 관심사는 경제문제일수밖에 없으며 그 다음이 나토의 核배치문제 등을 포함한 東西문제가 될것같다.

지난 수주동안의 여론조사결과는 이번총선에서 현재집권하고있는 보수파가 승리할 것이라고 거의 확신적으로내다보고 있다.

여론조사는 基民·基社연합이 48~50%, 지난번 밀려난 社民黨이 약4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반면에 지난 33년중 26년동안 聯政에 참여해왔던 自民黨은 5%이상의 득표를 못하면 의회에서 의석을 얻지못하도록 되어있는 선거법조항에 걸려 이번에는 의석을 모두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상이 나와있다.

경제난국을 타개하기위해 콜수상의 基民黨은 실업및노인연금,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등 사회복지비를 대폭삭감하고 私企業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대해 社民黨은 콜수상의 정책은 부자들을 더욱 부유하게 만들기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몫을 빼앗는 정책이라면서 「왜곡된 사회」를 조장한다고 반격한다.

정치분석가들은 基民·基社·社民이 여론조사에서 비교적 안정된 점수를 얻고있는데 비해 自民黨이 몰락을 겪게될 것이라는 예상은 그들의 「배신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때문이라고 지적하고있다.

自民黨은 社民黨과의 연정을 깨뜨림으로써 社民黨을집권에서 물러나게하고 콜수상을 집권가능케했다.

3월 조기총선의 판도를예측키어렵게하는 또하나의 요인으로 綠色黨의 출현이 있다. 3년전 환경보호론자들로 창당된 녹색당은 反核정책의 기치를 높이들면서 좌파와 반체제그룹의 지지를얻으며 세력을 급격히 늘려가고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녹색당은 5%이상의 지지를 얻어 사상 처음으로 환경보호론자들이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오는 총선에서 어느 정당도 과반수의석을 얻지 못하면 녹색당이 세력균형을 가름하는 중요한 변수로작용할 것이며, 이 경우 녹색당이 안고있는 정치노선의 이념적성향 때문에 실제로는통치불가능한 정국이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심각하게 들리고있다.

현재 집권하고있는 우파연립은 이때문에 녹색당의 대두를 견제하는데 부심하고있다. 이들은 「赤(社民)-綠(녹색당)」의 연정이 초래할 정국혼란을 강조하며 自派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있다. 【朴來富기자】

早期총선… 經濟·나토 核문제 겨냥

基民·基社연합체제 議席 50%기대

간디首相 辭任요구

印 野黨지도자 失業문제등 失政지적

◇레바논 人民저항단체 부상병移送

反시리아派인 레바논의 인민 저항단체대원들이 7일 시리아군과의 총격전에서 부상한 동료를 어깨에 둘러메서 옮기고 있다。【트리폴리 7일UPI電送=聯合】

【뉴델리AP特約=聯合】인도야당지도자들은 7일 인디라·간디수상의 집권국민회의당이 최근 실시된 인도3개주의회선거에서 참패한 사실을 들어 간디수상의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현재까지의 개표결과에 따르면 안드라 프라데시주에서는 배우출신의 야당정치인 난다무라·T·R·라오씨(60)의 텔레구데삼당이 2백81개주 의회의석중 1백96석을 확보, 35년에걸친 국민회의당의 독주에 종지부를 찍었으며 카르나타카주에서도 2백24개의석중 2백18개의석의 개표가 완료된 현재 국민회의당이 79석을 차지한데 반해 야당진영에서 1백83석을 확보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인도인민당(BJP)당수인 바지파이前외상은 이번 선거결과에 「부패·권위주의·고물가·실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투표였다고 지적하고 이는 간디수상이 더이상 국가를 통치할수없게되었음을 「명백히」 보여준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민당총재인 차란·싱前수상도 성명을 통해 이번 선거결과는 간디수상의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고 말했다.

인민사회당당수인 헴와티·난단·바후군나前석유상은 남부 2개주유권자들은 이번투표에서 집권국민회의당의『권위주의적·反국민적통치』와 간디수상에 대한 거부표결을 한것이라고 주장했다.

3개州 議會선거 慘敗

伊、내핍經濟에항의 勞動者들 철도占據

【나폴리 聯合】이탈리아정부의 내핍경제정책에 항의하는 수천명의 노동자들이 7일 나폴리, 피렌체및 기타도시들의 주요철도역을 점거했다고 경찰이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폴리에서는 약3천명의 시위군중이 아민토레·판파니수상에 반대하는 깃발을 흔들고 구호를외치며 역구내의 철로를 가로막는 바람에 1시간가량 이탈리아남부와의 철도교통이 마비됐다.

또한 피렌체에서도 수천명의 노동자가 역을 점거하고 시내 중심가를 차단했으며남쪽 바리 근처 동해안철도를 봉쇄했다.

판파니수상의 기민당이 주도, 4개당으로 구성된 이탈리아연립정부는 1주일전 혼란에 빠진 경제상태의 자구책으로 주택 운송료 전자제품등에 대한 세금을 올린데 이어 제2단계로 공공보건및사회보장금 지급액을 낮추기로 결정, 이는 반발에 부딪치게됐다.

墜落위성 原子爐분해

타스通信 大氣圈 돌입때 소각되게

【모스크바AP特約=聯合】소련은 7일 원자로추진 스파이위성 코스모스1402호가 우주공간으로부터 추락하고 있으나 원자로는 지구대기권재돌입시 불타버리도록 여러조각으로 분해됐다고 밝혔다.

관영 타스통신은 이날 코스모스1402호에 관한 짤막한 발표문을통해 『지상에서의 무선 조종에의해 분리된 원자로의 작동부분이 지구대기권에서 완전히 불타버릴 것이며 대기권내의 방사능도 정상치를 넘지않을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통신은 그러나 소련의 핵추진인공위성으로서는 두번째로 지구에 추락하는 코스모스1402호가 지구의 어느곳에 떨어질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시사도 하지 않았다.

【워싱턴AP=聯合】미국무성 관리들은 7일 지구로 곧 추락할것으로 예상되는 핵추진 소련군사첩보위성 코스모스 1402호문제를 재미 소련외교관들과 협의한뒤 코스모스 1402호가 지상에 추락, 그 잔해에 의해 방사능오염의 피해를 입는나라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미국이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藝術殿堂 건립계획

국립 現代美術館은 果川확정

문공부는 올해안에 설계를 마치게될 국립현대미술관 건립장소를 8일 果川남서울공원 부근으로 확정했다.

德壽宮안에 있는 현재의 국립현대미술관은 위치로는 적격이나 너무좁아 미술품보존에 어려움이있고 현대식건물로 개조할경우 古宮으로서의 모습을 잃게되므로 문공부는 야외조각장 시설을갖춘 1만평 이상의 부지를 물색끝에 남서울공원부근에 세우기로 서울시와 합의한것이다.

85년에 준공될 예정인 현대미술관은 전시장외에 미술품의 수장·보관공간과 연구·수집공간 그리고 강당 시청각교육실 도서실 자료실 관람객을 위한 서비스공간을 두게된다.

◇파리서 페달車 경주

파리에서 열린 3輪및 4輪페달車 경주대회에서 코믹하게 만들어진 3輪페달車 한대가 경기장의 커브길을 달리고있다。【키스톤=聯合】

海外토픽

濠洲외교관 추방 "顔面베일 벗겨라"

★이女人에顔面벗어라요구

이란당국은 최근 비자사진 촬영을위해 2명의 회교도 이란여인에게 베일을 벗어달라고요구한 호주외교관 2명을 추방했다고 호주주재이란 대리대사가 발표.

아마드·제드대리대사는 캔버라에서 가진 기자회견을통해 이란여인의 안면을 가린 베일을벗도록 요구한것은 회교리에 어긋나며 여자에대한 모독이라고지적하면서『외국공관들은 이란의 국가규칙에 어긋난조치를 요구할 권리는없다』고 주장.【캔버라=UPI】

原作料 찾아가라

★中共서 臺灣작가에요청

상해의 한 영화제작소는 대만작가의 소설을 영화화한 뒤 작가에게 원작료를 수령해가도록 요청했다고 중공관영신화사통신이 7일 보도.

이통신은 린·하이인여사가쓴 「남도의 추억」이 영화화됐다고 전하면서 영화제작소가 신화사통신측에 작가에게 원작료를 직접 수령하도록 요청할수 있다고 알려줄것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홍콩=AP】

産兒制限규칙 면제

★中共 광부·원양漁夫에 惠澤

중공남부 광동성의 가족계획당국은 지하에서 장기간작업하는 광부와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부등 특별한 사유가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산아제한규칙을 면제키로 했다고.

한가족 한자녀라는 국가시책에따라 중공의각성들은 자체적인 산아제한규칙을 제정하고있는데 광동성은 최근광부와 어부를비롯 첫아이가불구일때와 첫딸로 농가의 노동력부족이 심각할때등 6가지의 사유에 해당되는사람들에게는 또하나의 자녀를갖을수 있도록 허용했다는것.

광동성가족계획당국은 이같은 사유에 해당되지않는사람이 산아제한규칙을 위반하면 유산하도록 압력을받거나 처벌을받는다고 경고하면서 특별한사유에 해당되는 사람도 또하나의 자녀를갖기전에 직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된다고 규정하고있다고.【北京=聯合】

社說

人類의 하늘 不安없게

—붐비는外界와 核衛星추락 두렵다

땅위의 인간이 미처 지도위의 「국경선」을 긋기도 전에 지구궤도를 도는 우주쓰레기가 인간을 위협하고있다.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5톤 무게의 소련 첩보위성이 땅위에 떨어지리란 예보다. 소련 위성 때문에 일어나는 두번째 횡액이다.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초강대국에 국한돼있던 「우주시대」를 지구위에 살고있는 모든 인간이 어쩔수없이 실감하게되는 횡액이기도 하다.

지구궤도 우주공간이 교통러시를 이루고있다는 것은 이미 잘알려져온 사실이다. 미국의 우주정찰센터가 감시하고있는 지름 10cm이상의 우주쓰레기만도 5천개가 넘고있다. 대부분 로키트쓰레기거나 우주무기실험에 쓰인 것들로 낮은 궤도를 돌고있다.

이밖에도 지구궤도엔 인공위성들이 돌고있다. 소련은 역사상 처음으로 스푸트니크위성을 쏴올린 이래 25년동안 1천5백34개의 위성과 우주선을 쏴올렸다. 이에비해 미국은 7백95개의 위성과 우주선을 쏴올렸다.

미국이 최근 한해에 쏴올리는 위성은 1백68개. 앞으로 10년동안에 한해 평균2백개를 쏴올릴 작정이다.

지난해 유엔의 외계탐색및 평화이용에관한 회의의 사무총장을 지낸 야시·펠박사에 의하면 소련과 미국이 진행하고있는 우주계획의 75%는 군사목적과 관련된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올해에 군사목적의 우주예산으로 85억달러를, 민간계획에 66억달러를 쓸 작정이다. 소련은 이보다도 30~40억달러를 더 쓰고있는 것으로 짐작되고있다. 그 대부분이 有人우주스테이션개발에 투입되고 있다.

우리들은 이미 우주전쟁시대, 별들의 전쟁시대 문턱에 들어서고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우주공간을 지배하는 자가 땅위를 지배하는 시대가 열려가고 있다.

군사적인 관점에서만 그런것이 아니다. 미국의 항공우주국(나사)은 통신위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80년대에는 지구궤도에 교통난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있다. 나사에 의하면 1천1백개가 넘는 위성가운데 10%쯤인 1백10개가 적도위 3만6천km궤도에 고정배치돼있다.

적도권에 위치해 있는 제3세계국가들이 적도위 지구궤도에 대한 영공권을 문제삼는것도 그럴만한 일이다. 앞으로 일본과 중공, 인도, 그리고 브라질과 아랍권등이 미국과 소련, 유럽공동시장(EEC)으로 3分돼가고있는 인공위성시장에 뛰어들 것이고 적도궤도는 종로통보다도 붐빌 것이 확실하다. 20세기말이면 텔레비전중계위성만도 60개정도가 돌고 있을 것이라는 짐작이다.

게다가 미국의 나사당국 창구 앞에는 우주여행표를 사려는 사람들이 이미 줄을 서고 있다. 과학자나 신분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소설가와 존·덴버같은 가수도 끼어 있다. 미국의 우주왕복선은 86년까지 44차례의 우주비행을 할 계획으로 있다.

우리가 세계최고의 교통사고를 걱정하고있는 동안 미국과 소련이라는 초강대국은 이미 우주공간에서의 교통난을 걱정하게 됐다. EEC와 일본, 그리고 몇몇 개발도상의 큰 나라들이 우주공간의 교통러시에 뒤질세라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우주공간은 아직까지는 주먹과 권총이 지배하던 개척기의 미국 서부와 같다. 「힘의 질서」가 바로 정의요, 법으로 행세하는 상태다.

우주공간에 관한 국제적 협약은 미국과 소련이 승인한 4개가 있다. 65년 우주공간과 천체에서 독점적 주권선언을 금지하고, 무장을 금지한것이 첫 협약이다.

68년에는 모든 우주인에게 우주여행중 구조활동의 의무를 부과 하기로 합의했고, 73년엔 우주쓰레기 때문에 생긴 손해에 대해 발사국이 책임을지도록 규정했으며, 76년부터는 모든위성발사를 유엔사무총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하지만 텔리비전위성의 전파주권문제를 비롯해서 우주공간을 둘러싼 법률적시비는 이제 막 시작된데 지나지 않는다. 이 개척기의 우주공간을 우리는 「束手無策」으로 방관하고있는 꼴이다.

지금 당장 세계는 추락하고있는 소련의 핵위성의 위협앞에 긴장돼있다. 불안한 사태임에 틀림없다. 이 무슨 당치않은 불행인가.

우주공간의 무법상태를 통제할 양식있는 법질서의 수립을 촉구하면서, 우리자신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에 뛰어들 채비를 서둘러야겠다는 것을 새삼 강조하지 않을수 없다.

또한 그 衛星추락에 대비하여 비상태세를 갖추고있는 미국이나 일본을 남의 일로만 보지말고, 우리나름대로 만일의 사태에 대응하는 비상구조태세를 갖출것을 촉구하고싶다. 우리의 하늘·인류의 하늘을 안전하게 지켜가기 위해서다.

주택分讓價 凍結說

—값싸고 좋은집 많이 공급되기를

당국은 금년중 民間이 짓는 주택분양가격을 올리는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않거나 5~6% 이내에서 억제할 방침을 검토중인것으로 며칠전 알려졌다.

이것은 年間 물가를 3~5%등귀 수준에서 억제하려는 정부방침에 발맞추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는데서 취하는 것으로 밝혔다. 만약 주택건설업자들이 집값을 올려야할 요인이있을 경우에는 이를경영합리화에 의하여 흡수함으로써 계속 이제까지의 가격을 유지하도록 승인권자인 地方자치단체에 示達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당국의 이런 方針이 물가안정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를 실천에 옮기기위해 주택건설업자와 당국이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으로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당국은 주택건축용 자재의 생산과 공급과정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펴나가야 할것이다.

洋灰·벽돌·鐵材·木材·모래와 자갈등의 공급이 계속 순조롭게 이루어져야한다. 이과정에서 당국이 취해야할 조치들을 완벽하게 하여 막히는 대목이 없도록하기 바란다. 또 이자재의 品質을 높이고 그 가격을 安定化하기위하여 적절한 기술지도와 금융지원이 요청된다. 不良자재의 생산을 막고 좋은 품질의 자재공급을 늘리도록 지도·지원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宅地조성과 그 공급증대 및 地價安定을 위해서도 公共의 노력이 크게 촉구된다 할것이다. 특히 25평이하의 국민주택은 庶民大衆을 상대로하는 公益性을 띤것임을 명심하여 당국이나 주택업자가 이런 小型주택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로써 그 공급을 늘려야 한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것으로 附加價値稅의 複數稅率制로의 개혁에 대해서는 모름지기 이들 小型住宅건축을 零稅率 또는 가장 낮은 세율대상으로 하여 그 가격의 低廉化를 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住宅건설업자로서는 가격凍結을 不實工事에 직결시키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한다. 이를 위한 업자들의 깊은 인식과 더불어 당국의 철저한 施工감독을 바라고 싶다.

이제까지 분양가격은 建坪當 가격 하나로만 정해졌었다. 앞으로는 이를 건물가격과 垈地가격으로 나누어 표시, 보다 합리성을 갖추게하는 것이 좋을듯하다.

장차 集合건물(아파트)인 경우는 層別로 차등가격을 적용할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入住者便에서 볼때에는 合理的 방법일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 차등가격의 폭이 너무 크면 이에 따른 부작용도 또한 무시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차등가격요인중 人爲的인것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업자측에서 되도록 이를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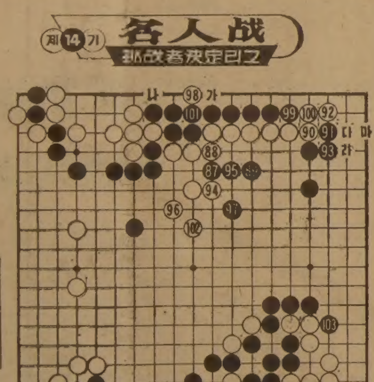
돌아가는 소문에 따르면 煖房의 혜택이 層別로 고르지 못한것과 淸潔度에서 아래층은 不利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通熱구조를 개선하고 層上의 斷熱장치를 충분히 하면 煖房혜택의 격차는 이를 없게하거나 줄일 수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건축원가를 줄이고 工期를 단축하는 方案으로서는 組立式주택건설의 발전이 바람직하다는게 전문가들의 一致된 소견인 것으로 알고있다. 앞으로 大大的으로 서민용주택을 지어야 할 형편임을 고려하여 당국과 업자들은 조립식 주택의 보편화와 그 전제로서의 주택規格化를 위하여 노력하는바 있어야 할것이다. 모두의 一考있기를 請해둔다.

名人戰 제14기 挑戰者決定리그

第7局 第4譜 87~103

白(6段) 張秀英<1勝>
黑(7段) 河燦錫<1敗>
(각5시간·덤5집반)



상변에서 黑이 「평상 사납게」 제2선을 긴것도 실은 87, 89로 외곽白을 공격하며 중앙을 경영하려는 작전이었다.

일단 수세에 몰린 白은 90이하 96까지 필연의 과정을 밟으며 중앙으로 탈출을 꾀했다.

白98은 응수타진수. 이에 대해 黑「가」면 白「나」의 선수를 당할까봐 黑99로 우선 피했는데 그 대신 99, 101은 白이 장차「다」에 젖혀 黑「라」때 白「마」로 뻗어 선수 1집을 내는 잇점이 있어서 과연 어느쪽이 낫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張6단은 이 근처서 시간을 물쓰듯이 하고 한편 河7단도 한수 한수에 조심성을 부려 白102까지 서로가 40여분씩 소비하고 있었다.

白、有望한 局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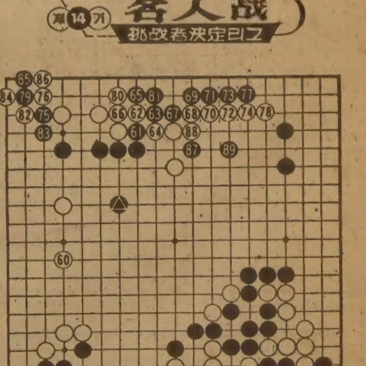
白102는 불과 1분. 이 수로는 참고도처럼 白1로 시원스레 뛰어나가고 싶지만 黑이 2에 들여다 보고 4면 白대마가 끊겨 버린다. 이같은 곳은 척 보아서 눈에 띄기 때문에 거의 노타임으로 안전을 기한 것이다.

드디어 黑103. 현찰같은 큰곳인데 그러나 대세는 白이 유망하게 보인다.【一凡】

名人戰 제14기 挑戰者決定리그

第7局 第3譜 60~89

白(6段) 張秀英<1勝>
黑(7段) 河燦錫<1敗>
(각5시간·덤5집반)



河7단은 성품이 싹싹한 탓인지 일단 저지른 실수와착 따위에도 그저 『아차 잘못했구나』고 뇌우칠 뿐 결코 뒤를 돌지 않는다. 그런후 「次善策」을 냉정히 생각하는 것이다.

이때문에 이른바 승부사의 집념같은것이 결여된듯이 느껴질때도 있지만 그런대로 적실한 기복이없이 페이스를 잡아가는 것은 유례드문 특징이라 하겠다. 아마 이래서 그의 바둑은 단순한 전투보다도 아기자기한 변화로 보는이의 흥을 돋워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魚腹공방전이 문제

전보에서 白60을 허락하여 포석에 뒤졌을때도 잠깐 고개를 설레더니 곧 黑61, 63으로 행동을 개시했다. 趙南哲8단의 해설에 따르면 『黑은 ▲표때부터 노렸던 차단작전으로 이하 81까지 외길인데 선악가부를 논하기에 앞서 그기백은 살만하다』고 한다.

이수순에서 白68을 88자리에 뻗어도 黑71이면 본보의진행과 대동소이하고 黑은 일단79로젖혀둔 것이 감명했다.

이에 대한 白82이하 86은 올바른수습이다. 섣불리 白82로 83자리를 젖혔다가는 위험을 자초하게 된다.

좌상白이 완생하자 黑은 87, 89로 중앙경영에 착수한다. 그러고보니 88까지의 白대마는 일단 공중에 떠있는 꼴. 이곳의 공방전이 당면한 문제거리다.【一凡】

엄마 말이 맞구나!

"괜찮아요, 그냥 갈래요."
"애는……혹시 비가 올지 아니?
귀찮더라도 우산 가져 가렴.
비가 오지않더라도 준비는 해 둬야해!"

조 규혁
(R)745—8236

강 경범
(R)279—7774

☎ 233～6236

- R.R.S.P(연금보험)
- WHOLE LIFE
- TERM LIFE INSURANCE
- 양로보험
- 모기지보험
- 자동차보험
- 상점·주택 화재보험

SOVEREIGN LIFE ASSURANCE COMPANY
A MEMBER OF THE CASCADE GROUP
Cloverdale Mall - Office Area, 250 The East Mall, Islington, Ontario

아침 한때

大學、어쩌다 이리 되었나

孤獨과 自由、個性과 理想의 광장으로 키워야

金丁煥 <高麗大 師大교수·교육철학>

신문도 TV도 온통 올해의 대학入試學科의 合格線을 맞히려는 占卦師들로 법석들이다. 지난해의 경우 세칭 일류대학들이 배짱지원과 눈치작전으로 합격자의 점수분포가 다이어먼드 형태를 이루면서 커트라인이 심하게 떨어져 올해의 지원자에게 별 도움을 주지 못할것이란다. 또 있다. 서울대는 합격선이 상향돼 「배짱합격」은 극히 희박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K대 Y대 S대 E대들은 심한 눈치작전과 배짱합격현상이 금년에도 여전히 있을것이라고.

눈치·배짱의 惡循環

아마 이 占卦가 거의 맞을 것이다. 대학이 어쩌다가 이 꼴이 되어버렸는가. 한심한 노릇이다. 지난해 憤懷을 느꼈던 교수가 나 하나뿐이랴. 지난해 3백점이상 득점자가 8백27명이었는데 이중 그 歷史, 建學精神, 個性을 자랑하는 Y대, K대에 지원한 학생은 단한사람도 없었다. 成績순으로 S대가 몽땅 훑어간 것이다. 하늘을 나는 新村골의 독수리 氣像과 지축을 흔든다는 安岩골의 호랑이 氣像이 無色하다못해 바제가 될 판이 아닌가! 美國의 경우를 비유로 들어보자. 官立인 UC버클리대학에 3백점 이상짜리가 다 몰리고 私立名門인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大에는 하나도 안가도 되겠는가.

人氣學科 選好현상도 민족과 대학의 장래를 위해 우려해 마지않을 일이다. 도대체 왜 매스컴이 최고득점자들을 마치 壯元及第者들처럼 소개하는지모를 일이지만 이들 최고득점자들은 하나같이 男女를 가리지 않고 法學科 醫學科가 아니면 컴퓨터에 관련된 학과에지원한다.

전통적 대학의 核心을 이루어왔던 학과, 즉 哲學, 歷史, 文學을하겠다는 학생들은 눈씻고 봐야 없다.

현행 大學入試制度의 탓인지, 우리들의 그릇된 교육의 탓인지, 산업사회가 내뿜는 풍潮의 탓인지, 이 모든 요인들의 相乘作用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 그것은 대학의 地盤이 흔들리고있고 그릇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의 대학, 학과가 一絲不亂하게 序列化되고 대학교육은 산업사회에서 출세하기위한 기술을 배우는 곳으로 전락해버렸다. 민족과 인류의 귀한 정신문화를 계승하거나 偉大한 史觀을 거쳐 偉大한 樂觀에 이르게 하는 歷史意識의 고취 따위는 정말 바보짓으로 보이게 되고 말았다.

문득 몇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회상된다. 미국에 移民간 사람이 사윗감을 구하러 한국에 나왔다. 사윗감 제일후보는 컴퓨터기술을 가진 사람, 제2후보는 득사라 하였다 한다. 이분을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분의 생각, 삶의 姿勢가 잘못되어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우리의 대학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聖經 말씀에도 있듯이 자기「황차」를 하늘로 섬기는 사람들을 만드는 곳으로 전락하였는고.

앞에 밝혀있거나 꿈을 잃은 한국의고등학생 대학생들의 물결을 볼때마다 늘쌍한 생각이 들며, 이들과는 너무나도 對照的인 유럽의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부럽기만 하다. 이탈리아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아드리아海의 커다란 客船갑판풍경이 퍽 감동적이었다. 마침 여름방학때여서 그런지 천명쯤되는 승객의 9할이상이 고등학생, 대학생들이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이탈리아등의 학생들이 뒤섞 하나되고 인류문화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꿈, 낭만, 고독과 자유를 즐기고 있었다. 고등학생이건 대학생이건 적어도 2개국어는 자유롭게 구사하며 꿈과 友情을 나누고 있었다. 그 옛날 이 바다를 주름잡으며 살았던 일리아드, 오딧세이의 꿈, 낭만, 자유의 정신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의 배에탄 同志이며 역사의 주인이라는 의식을다지는 것이었다. 산업화의 물결속에서도 흔들리지않는 유럽의 精神文化의 원동력을 이들 학생들의 삶의 자세에서 볼 수 있었다.

대학인으로서의 我田引水격인 발상일는지는 몰라도 나는 역시 대학을 살림으로써 문화를 살리자고외친 독일의 훔볼트의 古典的 大學의 理念이 오늘날 한국의 대학에 도입되어야만 한국의 문화가 산다고 확신하고 있다. 훔볼트의 大學觀이 근세 독일 발전의 원동력이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는 말한다.

大學理念의 再吟味

「대학은 고독과 자유를 즐기는 곳」이어야 한다고. 고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의 內面生活에 沈潛하여 자기삶의 자세를 다지는 일이다. 近世를 연 世界史的 사건이 둘 있었다. 하나는 마젤란의 세계일주요, 또하나는 루터의 宗敎改革이다. 전자는 인류에게 無限한 活動空間을 안겨주었고 후자는 자기 가슴 세 치를 파고 또 파헤치면서 양심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 두 계기중에서 가슴 세 치를 판 루터의 孤獨한 思索의 결과가 마찰없이 생활공간 확대보다 더큰 계기로 평가되고 있고, 이것이 진정한 유럽을 열였다고 찬양되고도 있다.

自由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삶에대한 主人意識을 말한다. 고독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대학은 대학이 아니다.

훔볼트의 大學理念을 우리는 다시 음미해야 한다. 그 첫째는 대학의自活相이다.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그대학의 역사와 전통에 따라 자유로와야 하며 대학은 世俗的 權力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와야 한다는 생각이다. 둘째는 대학의 人文相이다. 대학에서 길러내야 할 가장귀한 정신은 歷史, 哲學, 純粹科學, 文學, 藝術등 精神文化敎科, 즉人文敎科를 주축으로 한 歷史意識의 고취라는 생각이다. 세째는 대학의 永遠相이다. 대학은 영원한 과거와 영원한 미래를 다지면서 인류의 꿈을 계승하고 키우는 곳이지, 결코 현실의 문제에 집착해서 實用的 學問만을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네째는 대학의 人類相이다.

大學은 文化의 고향

대학은 물론 한 나라, 한민족에 의해 재정적으로 지원되고 경영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 자체는 한 민족, 한국가에 종속되지 말고 人類의 보편적 文化財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생각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歷史的 事實로 하나 소개하여 본다. 일본의 敗色이 짙어지기 시작한 太平洋전쟁의 말기에 미국의 B29機가 떼를 지어 東京을 공습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軍部는 東京의 중심부에 있는 東京大學 구내에 高射砲 진지를 구축하려고 압력을 가했다. 東京大 교수회의는 이를 끝까지 막았다. 그때 교수회의가 든 名分이 이 대학의 人類相이다. 동경대학은 인류의 대학이지, 일본만의 대학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그후 되풀이 음미되는 역사적 英斷으로 평가되고 있다.

만일 그때 고사포 진지가 구축되었더라면 B29는 기다렸다는 듯이 동경대학을 강타했을 것이고, 일본의 각 대학들도 다 이 본을따르다 파괴되었을 것이고 일본은 패전후에 딛고 일어설 발판을 잃었을 것이다. 다섯째는 大學의 孤獨相이다. 이는 세속세계와 일정한 거리를 지니면서 양심의 문제를 다지고 정의와 파수꾼이 되는 志士的 氣質을이룸이다. 社會參與 아닌 公正한 社會批判機能이 대학의 所任임을 말한다.

유럽 문화의 고향은 대학이고 대학은 이런 理念들을 견지하고 있다. 산업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대학이 바뀌어야 한다고 외치는 論者들도 있지만, 이럴제바뀐 대학들은 적어도 유럽에 있어서는 대학의 主流를 이루지 못한다. 이것이 그들의 장점이다.

아시안게임에서 3위를 했고 88년도에는 올림픽을 치르게 된 자랑스러운조국의 발전상을 생각할때 하숙방, 배급쌀밥에 굶주리며 공부했던 우리 50대교수들은 가슴 뿌듯한 감회를 느끼며 우리같은 목단이 「훈장」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조국이 있다는 보람도 느낀다. 이제 우리 대학인들이 앞세대 뒷세대서로 탓하지 말고 技術立國, 輸出立國보다 文化立國에 힘써야 할 때다. 그러려면 우선 문화의 고향인 대학이 새로와져야 한다. 눈치작전, 배짱입학, 卒業定員制로 서로 노골도 안되게 하는 치사한 대학에서 고독과 자유와 個性과 이상을 키우는 成熟한 대학으로 발돋움할 채비를 마련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것이 필자의 돼지꿈이다.

寒波녹이는「政治熱風」

—各黨 地區黨개편大會 안팎

○…民正·民韓·국민등 3개정당은 2년마다 한번씩 찾아오는 全黨대회의 前哨戰인 지구당개편대회란 정치행사때문에 嚴冬추위를 잊고있다.

작년年末에 이미 지구당개편대회에 착수한 民韓黨과 국민당은 전국市·道당각지를순회하며 추위를 녹이는「政治熱風」로 뜨거운 분위기이고 특히 民韓黨의경우 黨權派와 非黨權派가 서로 만만찮은 攻防戰을 벌이고 있다.

중앙專擔에 劃一化비판 民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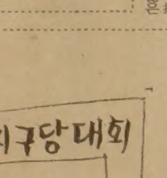
○…民正黨의 지구당 개편대회는 野黨대회가 위원장의 黨內지위·財力·성격및 지역구특성에 따라 千差萬別의양상을 띠고있는데 반해 一絲不亂하고 획일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소집될 임시국회때문에 당초의 시작일정을 17일에서 20일로 늦춰 오는 2월15일까지 25일간 92개 전지구당 대회를 모두 끝낼계획을 세우고있는 民正黨은 따라서 효율적이면서도 통일된 대회를 위해 개편대회일정도 중앙당, 조직국에서 결정, 각 지구당에 시달했으며 대회에 필요한 팸플릿및 인쇄물과 리번, 기념품 제작방침을비롯 대회장내에 붙일 口號까지 중앙당에서 일괄지시했다.

대회용 弘報팸플릿의 경우 중앙당이 일괄제작해 배포하기 때문에 각지구당은 자체적으로 이를 만들 필요가 없으며▲리번은 대의원용과 來賓用을 구분하고▲口號는 이런것들을 사용하며 ▲타월등 기념품을 만들지말고 ▲대회장에서 낭독할 경과보고서에는 이런 이런 사항을 포함시킬것등 民正黨의 대회준비는 그야말로 주도면밀하다.

그래서 92개 지구당 모두가 같은 모양의 잔치를 치른다는것은 정당의 개방성을해치며 劃一的행사는 오히려부작용만 초래할가능성이 없지않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民正黨은 지구당대회가 획일적이란 비판을 의식한듯 대회에 참석할 당지자들의입을통해 정치문제 또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정책들을 한가지씩 터뜨려 분위기를고조시키는 방안을 갈구하고있으나 아직은 재목을 찾지못해 고심중이다.



祝辭논쟁…"새벽論"에 "촌닭論" 攻防 民韓

○…8일현재 전국 92개 지구당중 15개 사고당부를 제외하고 20개 지구당의 개편대회를 끝낸 民韓黨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대회분위기는 점차 熱氣가 오르고 잡바람이 일고있다.

물론 지난날과 같은「與黨과열」의 조짐은 없지만 是是非非가 지적되고 지도부의 허물이 비판되는등「野性의 回歸기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黨權을 겨냥한「挑戰의 입장」은 표명되지 않은채「挑戰의 의지」만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

民韓黨의 개편대회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형식적인 회의 절차가 끝난뒤 진행되는 祝辭시간.

이때쯤이면 총재에 대한「忠誠맹세」가 다투어 벌어지고 지도부에 대한 잠복섬 불만과 黨權을 겨냥한 속마음이 표출된다.

祝辭의 단골 손님인 劉沃祐 李泰九부총재 柳漢烈사무총장이「총재 續任論」을 펴면 辛相佑 전사무총장 趙光玉의원등은「批判論」으로맞선다. 金殷夏국회부의장, 金文錫 인권옹호위원장 梁在澄훈련원장등은 黨의 團合論을, 그리고 吳洪錫 중앙상무 의장 金鉉圭정책심의회 의장등이「야당의 자세論」을 펼친다.

「총재 續任論」은「猛將과 德將, 勇將의 면모를 겸비한大人의 풍모를 지니신 분」으로부터「감정이 무던게 아니라 감정을 감출줄 아는 지혜로운 분」이라는등 柳총재의 人品論이 주종이다.

이에 반해 批判論측은「安住의 자세를 탈피해야 한다」는 발바꿈論에서부터 전통야당의 여부, 현상을 보는 소극적 視角등 지도부의 자세를 공략하는 내용이다.

黨權派와 非黨權派는 祝辭논쟁에서 譬喩的인 공방전과 故事를 동원해 一進一退를벌이고 있다.

非黨權派측이『새벽은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지 잠자는 자에게는 오지 않는다』고「새벽論」을 제기하면, 黨權派측은『새벽이왔다고 조급하게 날개를털고 울어대는 촌닭이돼서는안된다」고「촌닭論」으로 맞선다.

특히 辛相佑전총장은 佛家의 선문인「眼橫鼻直」과 蘇東坡의 시구인「花紅柳綠」을 援用하면서「눈과 코가 비뚜로 달렸어도 생존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야당이 존재할 수는 없다」『여당은 여당의 빛깔이 있고 야당은 야당의 빛깔이 있어야 한다』면서지도부의 자세를비판하고있다.

이에 柳致松총재는「慷慨悲憤死 從容取義難」(참지 못하고 죽는것은 쉬우나 참으면서 찰길을 찾듯이 가기는 어렵다)、李泰九부총재는「小不忍則 亂大謀」(작은일을 참지 못하면 큰일을 흐트린다)란 孔子의 말씀으로 측석반격을 시도한다.

○…개편대회가 열렸다하면 평균 20, 30명의 의원들이 떼지어몰리는 것도 두드러진 특색이다.

7일의 柳致松총재 지구당(平澤·安城) 개편대회에는 당소속의원 81명중55명이 몰려 마치 全黨的 창당대회를 연상케하는 성황이루었다.

또한 8일의 서울道峰區(金泰洙의원) 冠岳區(韓光玉의원)개편대회에도 50명가까운 소속의원이 진경했고 群山·大德지구(柳漢烈의원) 大邱東·北區(韓亮相의원) 南·壽城區(申鉉洙의원) 安養·始興지구(李興鎬의원)에는 30여명의 의원들이 자기리 會장을 하기도했다.

이때문에 각지구당은 축사를 해줄 인사섭외에 애를먹고 있는데 扶餘·舒川지구(趙重衍의원)는 17명 소속의원전원에게 축사의 기회를줌으로써 장장5시간에 걸친 마라톤 개편대회 최장시간을기록했다.

○…지금껏「在野와의 同質性」을 지나치리만큼 강조해왔던 民韓黨이 7일의 柳총재 지구당 개편대회에서는在野 선명성을 하고 나서 주목을 끌었다.

이날 祝辭에 나섰던 劉沃祐 李泰九부총재 金殷夏 국회부의장등은 黨內비판세력과 在野를 싸잡아 공격하여 눈길을 끌었다.

특히 李부총재는『지난날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했단 말이냐』면서『자기들이 참여하면 민주주의가 되고 참여 안하면 민주주의가 죽는단 말인가』『우리는 그들이 저지른일에 빚 갚으러 다니고 있다』『이번 전당대회는 과거와 같은 추태에 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他黨의식 조출히、정부·與黨 성토 국민

○…8일까지 30개지구당 개편대회를 끝낸 국민당은오는20일까지 78개 前黨지구당대회를 모두 끝낸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18개 有故지구당중 위원장職代가 임명되어 대회가 가능한곳은 9개뿐이어서 全黨대회에는 70여개 지구당이 대의원을 보낼수있을것으로 보여진다.

국민당은 조직의 노출을피하고 상대방인 民正·民韓黨을 자극시키지 않기위해「內實있고 조촐하게 대회를 치룰것」을 지시했지만 대회의 모습은 대체적으로 다양한 편.

淸州(尹錫民부총재)·禮山靑陽(李鍾聲 전당대회의장)·安東·義城(金永生의원)처럼 財力있는 위원장을 갖고있는 지역구의경우 성황리에 대대적인 행사를 치렀는가하면 大邱中區(李萬燮부총재)와 같이 조촐하게 대회를 끝낸곳도있으며 院內지구당은 비교적 화려하고 시끄럽게, 院外는 비용절감을위해 간략하게 치러지고있는 풍이다.

淸州지구당의 경우 14명의 소속의원과 20여명의 院外위원장및 당원등 2천여명이참석한가운데 室內악단까지 동원하는 그야말로 祝祭를 이뤘으며 李의장도 1천여명을 동원하여 실력을 과시했다.

또 국민당의 兩巨頭인 金鍾哲총재와 李萬燮부총재가 처음으로 會同하여 관심을모은 義城·安東지구당대회는安東에서 15대의버스가 대회장인 義城으로 당원을 실어날라 대회장에 당원들이 모두 참석하지 못할정도였다.

이에반해 李부총재는 지구당당사에서 그야말로 조촐하게 대회를 치렀는데 여기에서 李부총재는 자신의「심경」을 당원들에게 토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18개院內지구당중에는 李東鎭총무、趙一濟정책의장、金鍾河、李聖模、李聖秀、朴在旭、金基洙의원등 7명만이 대회를 남겨두고 있는데 특히 10일상오에 열릴 李총무의 永同지구당 대회에는李鍾贊民正、林鍾基民韓黨총무가「院內代表」의 友誼를 다지기위해 참석할 예정으로있어 주목되고 있다.

개편대회에 참석한 당지자들의 致辭나 祝辭는 대체로 정부·여당을 겨냥한 소리가 대부분이어서 눈길을 끌고있다.

메아리

行次뒤

새해 우리나라예산은 얼마인가. 썩 좋은 물음은 아니지만, 入社시험 상식문제쯤으로 나옴직하다. 해답은 10조4167억원. 많은 사람이 이 정도의 수치는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끝수는 몰라도 올해에 처음 우리나라 예산이 10조원을 넘었다는 보도를 기억하는 사람은 더 많을 것이다.

그럼, 다음 질문―.

새해 우리나라 지방예산은 얼마인가. 좀 막연하다면, 서울 시민에게는 새해 서울시 예산은, 기타지역 사람에게는 당신이 사는 市나 道의 새해 예산은 얼마인가.

아마 즉답할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것같다. 더 나아가 市·郡, 또는 區의 예산 얼마인가 물어서 즉답하는 사람은 市·郡·區의 직원뿐일 터이다.

지방예산은 바로 내가 사는고장 내집곰곰한 사정을 결정하는 한해의 청사진이다. 내 청소사정이 어떻게 될지, 수도사정이 어떻게 될지, 집앞길에 보도블록이라도 깔릴지, 班常會에 나아가 말했던「宿願」은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기는 위에 꼽은 여러가지 혜택은 별로 보지 못하면서 세금과 각종요금은 얼마나 더 내야할지가 그 예산에 달려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예산규모조차 모르는채하고 지낸다. 왜, 관심이 없어서? 아니다. 그렇게 길들여진 것이다.

도대체가 일반시민치고 서울시의 예산「案」、각 市·道의 예산「案」을 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 심의과정―예산案중 어느 부분이 죽고 사는 경위를 들어본 사람은 더물다. 이처럼 지방예산 심의는「密室」속이나 다름없으니, 관심을 가질래야 가질수가 없다. 이것이 20여년 습성처럼 되었다.

그러면, 지방예산은 우리를 관심밖에있어도 괜찮을만큼 하찮을까. 내무부와서울시가 확정·발표한 새해의지방예산은지방 각 市·道가 1조6천4백4억원, 서울시가 1조2천6백53억원, 합이 2조9천57억원, 국가예산의 30%규모다.「密室」에 넣어두기에는 덩치가 너무크다.

그런것을「案」의 공표도 없이, 공개토론도 없이, 심의과정을 밟힘도 없이, 관의 손으로 요리한다.

그나마 확정예산의 발표라도 친절했으면 싶은데, 해마다의 발표내용은 쥐꼬리만큼을 보고 쥐의 크기를 짐작해 보란듯이 조잡하다. 금년의경우 내무부와 서울시 발표는, 서로의논이나 한듯이 각市·道예산은 19%, 서울시 예산은 3.5%가 전년도예산 보다 감축된듯이 긴축을 앞세웠다. 그러나 그것은 追更을 포함한 전년도 최종예산과의 대비요, 당초 예산보다는각각 25%와 12%가 증가한 것이 실상이다. 거짓은 아니더라도 속임수에가까운 잔꾀가 엿보인다.

이같은 불만은 지방세의 납세자로서 당연한 것이다.

새해 지방예산에는 지방세 세입을 9천96억원이나 계상하고있다. 서울시민의 경우는 한 사람 5만6천원, 작년보다 13%가 늘었다.

그런데도 그돈(稅)내는 사람에게는 돈을 어디에쓸지 一言半句 의견을 반영시킬 길이 없다. 이상하다기 보다는 뭔가 잘못돼있다.

뿐인가. 각 市·道는 작년도 현재로 1조원 가까운 빚을 걸머지고있다. 서울시의 경우는 지하철만들면해서도 1조6천8백여억원의 國內外빚을 끌어 쓰기로되어있다. 앞으로 몇년치 지방세와맞먹는 이빚을 누구는 누가 갚는가. 그 대답이 뻔하다면, 누구와 의논해서 빚을 얻어 써야 할지도 뻔하다.

이 뻔한 사리가 통하지 않는것이 우리 지방예산이다. 무슨 特例法엔가, 地方議會의 권능을 국무총리(서울市)와 내무부에서 대신토록 규정했다고 해서, 세금낸 사람, 빚 갚을 사람과는 아무의논도 않고, 세금을 매기고 빚을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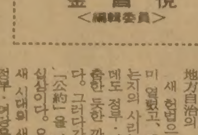
맹랑하다 싶지만, 법이 그러하니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당당의 의문은, 과연 地方議會의 권능을가진 총리실과 내무부가 그권능에 걸맞은 구실을 한느냐.

딴 것은 몰라도, 올해에 되풀이된대로, 예산案을 공표하여 여론을 수렴하지도 않으며, 事後발표조차 부실한 것만으로도 총리실과내무부가 地方議會의 구실을 다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한가지 예로, 각 市·道예산案의 삭감액이 고작 1백18억, 0.7%분인것을 들수있다. 이것을 전번 국회에서의 예산심의 절차, 그결과로「聖域」인 防衛費를 10%나 깎았던것과 비교해보기 바란다.

地方議會의 권능은 차지하되 그 구실을 외면하는, 이같은 행정의獨斷과 부실이 지방예산 발표를 씁쓸하게 보는 가장 큰 이유다. 그러니 지방예산제도의 근본을 뜯어 고쳐야 할 필요를 말하지 않을수가없다. 그 길은 예산을 심의할 地方議會―地方自治의 부활뿐이다.

새 헌법으로 地方自治의 길은 이미 열렸고, 왜 地方自治를 해야하는지의 사리는 너무 환하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의 태도가 엉거주춤한 듯한 까닭은 이해 못할 일이다. 그러다가는 헌법에까지 明記한「公約」을 미룬다는 오해를 사기 십상이다. 오해가 없기 위해서, 또 새 시대의 새로운 전개를 위해서도 정부·여당은 地方自治를 금년 최대의 이슈로 政策日程에 올리는 것이 현명하다.

한사람의 납세자로서, 해마다 이맘때, 지방예산의 행차뒤 나팔이 울릴적마다 地方自治의 「不在」를 새삼 절감한다. 내년에는 이런감회가 없기를 바라지만, 지방예산에 좀더 관심을 갖는것이 정부·여당의 현명을 재촉하고, 내 고장을 위하는 길임을 생각한다.



金昌悅 <編輯委員>

교회안내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742-7010
대한교회	조남유	주일오후 2:00	3819 Bloor St. W.	621-6340
키치너워터루교회	정동석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00	388 Ottawa St. S. Kitchener	(519)579-0954
런던제일교회		주일오전 11:00 주일오후 1:30 금요기도 오후 8:00	135 Briscoe St. E.	(519)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오전 11:00 주일오후 1:00 금요기도 오후10:00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메시아한인교회	조창환	주일오후 1:30 영어예배 12:30 새벽기도 6:00 토·수요예배 오후8시	1580 McCowan Rd.	298-1876
시민교회	조성관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금요기도 밤 9:00	662 Pape Ave. Tro.	266-4918
선교교회	강제칠	주일오후 1:00	1 Greenland Rd.	444-8002
임마누엘교회		일요오후 2:00	63 Dunblaine	488-4141

은성장로교회	장은덕	주일오후 2:00	8 Amroth Ave. (at Danforth & Woodbine)	694-9691, 266-8820(R)
해밀턴연합교회	김낙중	성경공부 2:30 예 배 3:00 주일학교 3: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중앙한인연합교회	김태규	주일오후 12:30	353 Sherbourne St.	922-3863, 922-0605
한인교회	반병섭	주일예배 오후 1:30	69 William St. Weston	243-9543, 743-8082(R)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수요집회 밤 8:00	240 Manor Rd.	446-1211
한인중앙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9:00	502 Bathurst	245-4980 (전화설교)
천주교회	최규식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439 Dundas St. E.	863-0415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찌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찌어다 〈시편 100 : 1~2〉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機內에 爆發物장치" 긴급電文받고 KAL機 日에 非常착륙

허위提報… 精神病 搭乘중국인 장난

뉴욕→서울行

◇恐怖의 좌석 스튜어디스가 괴편지를 보낸 중국인 郭永明이 타고있던 44A석을 가리켜보인다. 새벽의 나리따공항과 서울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폭발물장치」 사건은 싱겁기는 하지만 다행스러운 해프닝으로 끝났다.

뉴욕을떠나 서울로오던 대한항공소속 KAL 007편 보잉747 점보여객기(기장 權泰根·43)가 8일 새벽5시22분 기내에 폭발물이 장치돼있다는 긴급연락을받고 일본 나리따공항에 비상착륙, 일본경찰이 기내를 정밀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않았다. 동기는 이날 일본을떠나 하오1시55분 金浦공항에 무사히 착륙했다.

승객 2백13명과 승무원23명을 태우고 7일상오1시23분(현지시간 6일밤11시23분) 뉴욕을 출발한 KAL기는 8일상오6시50분 金浦공항에 도착할예정이었다.

KAL기는 앵커리지를 이륙한지 3시간10분뒤 북위54도 동경1백70도 북태평양상공을 지나고 있을때 앵커리지공항으로부터 기내에 시한폭발물 장치가 돼있고 용의자로 중국인 탑승객 郭永明을 주시하라는 대한항공 터론토지점에서 보낸 긴급전문을 받았다.

대한항공 터론토지점이 7일 접수한 괴편지는 발신인이 영문으로 郭永明으로 쓰인것으로 『내가 타고있는 비행기에 시한폭탄이 실려있는것 같다.

나는 오늘저녁 터론토를떠나 뉴욕 서울을 경유 8일상오9시10분 KAL 617편으로 홍콩으로 갈예정이다. 내가타는 비행기에 어떤사고가 생기면 캐나다 온타리오의 혼·윌리엄·데이비드에게 탄원서를 써달라고 해달라」고 적혀있었다.

權기장은 전문을 받은즉시 吳興國사무장(38)을 불러 이사실을 알리고 승객들의 동요를 막기위해 일체 눈치채지못하게 한뒤 郭을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吳사무장은 마침 좌석번호 44A착가에 앉아있는 27세가량의 왜소한 체격에 검은 안경을 끼고 있는 郭씨를 확인하고 옆자리에 앉아 있는 미국인 승객 2명을 郭씨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다른 자리로 옮긴후 계속 감시를 해왔다.

승무원들은 만일의경우 郭씨에게 수면제를 먹일 것을 준비하기도 했었다.

權기장은 郭을 확인한뒤 8일 상오3시57분 일본나리따공항에 비상착륙을 요청, 허락을받고 착륙준비를 했다.

승무원들은 기체가 착륙하자마자 郭씨를 출구쪽으로 밀어내 이미 대기중인 일본경찰에 인계한뒤 승객들은 휴대품을 놓아둔채 공항대합실로 대피시켰다. 40여명의 일본 경찰과 공항직원들은 곧 청소부로 가장하고 기내로들어가 점검을 했고 승객들이 부친 14t의 수하물에 대해서도 정밀수색을 폈으나 아무 이상을 찾아내지 못했다.

대한항공은 철저한 검색에도 폭발물이 발견되지않자 6시간뒤인 상오11시38분 소동의 장본인 郭씨와 환자2명을 뺀 승객2백10명을 다시 태워 나리따공항을 출발했다.

한편 일본경찰은 KAL기가 착륙한직후 郭씨와 또다른 캐나다인등 2명을 용의자로연행 조사한결과 郭씨로부터 KAL기내에 폭발물이 장치돼있다는 허위정보가 담긴 편지를 대한항공 터론토지점에 보냈다는 자백을받고 郭씨를 구속했는데 경찰에서 『비행기안에 나보다 사악한자가있어 경고장을 보냈다』는등 횡설수설하고 있어 정신질환자가아닌가 일본경찰은 보고있다.

琴湖호텔 火災… 失意의 金秀蓮양에

새해맞아 "새 일터" 贈物

◇첫 출근한 金양 서울 호텔롯데에 새일자리를 얻은 金양이 8일 첫출근, 영업이사 李仁炳씨(51)와 인사를 나누고있다.

호텔롯데서 投宿客 30명救한 「책임감 採用」

大邱琴湖호텔 화재로 직장을 잃었던 金秀蓮양(22)이 새해벽두 새삶을 찾았다.

호텔종업원을 천직으로 알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金양은 뜻하지않은 화재로 32명의 사상자가난뒤 大邱市가 琴湖호텔에대해 숙박업등록을 취소함에따라 하루아침에 오갈데가 없게됐던것.

金양의 이같은 사연(한국일보 12월31일자 11면보도)이 알려지자 서울호텔롯데와 한 독지가가 일자리와 기숙처를 각각 제의, 金양의 실의를 한꺼번에 덜어주었다.

호텔롯데의 객실관리부 사원으로 정식채용된 金양은 고향인경북華城에서 고교를 중퇴, 79년부터 琴湖호텔에서 근무했었다.

책임과친절을 신조로 일해온 金양은 琴湖호텔에불이 났을때도 침착을 잃지않고 투숙객30여명을 차례로 깨워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6층비상구가 잠겨있자 옆보일러실에 있던 쇠뭉치를 들고나와 부수는등 여자답지않은 기지와 대담성을 보였다. 한때 실신했다가 병원에서 깨어난 金양에겐 주위의 칭찬에 뒤이어 실직이 기다리고 있었다.

金양의 딱한 사정이 보도된뒤 평소 호텔에 근무하면서 화재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갖고있던 호텔롯데(대표趙東來·52·서울中區小公洞1) 기획실차장 朴信周씨(41)가 제일 먼저 신문을봤다.

朴씨는 곧 총무부장 李仁源씨(37)에게 알렸고 李씨는 때마침 열리고있던 중역회의에 뛰어들어 신문을 내보이면서 『이런 훌륭한 호텔종업원이 있는데 우리호텔 직원으로 채용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의했다.

결과는 외국인이사들까지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대표趙씨는 「기사를 보고 자신이 가장 신경을 쓰는 방화문제에 큰도움이될 적격인물이라고 생각, 채용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총무부장 李씨도 『어린 나이에 그만한 일을 해낼려면 평소에도 직업의식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이라며 金양의 채용을 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희망部署·좋은待遇 약속

琴湖호텔 단골손님들도 앞다퉈 "宿食제공"

호텔롯데에서는 金양이 원하는 어느부서에서라도 근무할수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며 전문대학 졸업수준의 급료인 월20여만원의 본봉과 연4백30%의 보너스에다 중식까지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호텔롯데는 대표 趙씨를 포함한 전종업원이 화재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보이고 있다. 평소에도 모의화재 훈련을 수시로 실시하고 소방관출신 15명을 종업원으로 채용할 정도다. 따라서 호텔롯데측은 金양을 정규근무외에도 호텔종업원들의 소방교육때면 산경험담을 들려주는 소방강사로도 활용할예정이다.

한편 서울에 연고가 전연없는 金양이 서울로오게되자 평소 琴湖호텔 金양의 단골손님들은 너도나도 연락을 해 자기집에와 숙식할것을 권했다.

그러나 金양은 이를 모두 사절하고 한친지의 권유를 받아들여 그집에서 기거하기로 결정, 지난 7일 상경했다.

金양은 이렇게 훌륭한일자리를 얻은것이 말할수없이 기쁘고 자랑스럽다면서 『열심히 일해 사회에 보답하겠다』고 역시 침착한 목소리로 약속하고 있었다.

【宋大洙기자】

漁船 2천7백隻 대피

全해상에 强風 新安엔 中共선박 42척도

【浦項·木浦·麗水】 8일浦項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일대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초속14~18m의 남서내지 북서풍과 함께 3~4m의 높은파도가일어 일대에서 조업중이던 어선1천7백여척이 인근 항포구로 긴급대피해 있다.

浦項—鬱陵간을 운항하는 정기여객선 한일3호는 鬱陵島道洞항에 발이묶여 浦項과 鬱陵島에는 관광객 3백여명이 인근 여관등지에 투숙, 대기하고 있다.

한편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해상에도 폭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8일상오 8시현재 木浦및 麗水항등엔 국내외어선 1천여척이 대피중이다.

木浦항에는 여객선 40여척을 비롯, 3백여척의 각종 어선이 발이 묶여있으며 新安郡 黑山面 小黑山島에도 중공어선 42척을 비롯, 동지나해에 출어했던 어선 2백여척이 몰려있다. 이바람에 木浦항에는 각 도서지방으로 나갈 5천여명의 여객이 발이 묶여있다.

麗水항에는 여객선 12척이 대피해있고 근해에서 조업중이던 어선 7백여척도 麗川郡 거문도·나로도·안도항·포구등에 대피해있다.【聯】

嶺東북부엔 27차례 停電

【東草】 東草를 중심으로 嶺東北部지방에 7일하오 7시께부터 순간최대풍속 28m의 강풍이 몰아치며 전기가 자주 나가 주민들이 추위속에 장시간 고통을 겪었다.

동해중부와 嶺東지방에는 이날밤 9시를 기해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나 2시간전인 하오7시께부터 기온이 떨어지고 강풍이 몰아치면서 전기가 나가기시작 8일새벽 4시50분까지 무려 27차례나 정전이 거듭됐다.

이같은 정전소동은 江陵이북의 溟州 襄陽 東草 高城지방이 함께 겪었는데 갑자기기 몰아친 강풍과 예년보다 기온이 6도나 떨어진 섭씨 영하3도이하의 한파속에 계속되어 주민들이 크게 고통을 받았다.【聯】

下向지원 경향

눈치作戰, 大入창구 한산

지난 6일에 이어 모든주요대학의 입학원서접수가 시작된 8일 각대학 입시창구는 원서를 내는 수험생이 거의없어 한산, 초반부터 심한 눈치작전을 나타내고있다.

한편 대입원서를 작성해주고있는 일선고교도 마찬가지로 학과선택을 묻는 해오는 수험생이나 학부모가 거의 보이지 않고있고 학과선택이끝난 수험생들도 대부분 안전위주로 하향지원하는 경향이 뚜렷해 원서 마감일에 임박해 접수창구가 큰혼잡을 빚을것으로 보인다.

서울大는 이날상오 10시부터 冠岳캠퍼스학생회관 2층에 30개의 접수창구를마련, 원서접수를 받고있으나 하루동안 40여명이 접수를했을뿐 한산했다.

이는 지난해 첫날접수분 1천8백여명과는 비교가 안되는 것으로 심한 눈치작전과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으로 보인다.

서울大는 문교부의 권장에 따라 단체접수를 하는 학교들이 있을것으로보고 단체접수창구를 별도로 개설했으나 찾는이가 한명도 없었다.

일요일도 願書접수

문교부는 8일 83학년도전기대학 신입생원서접수에서 수험생들의 편의를위해 일요일인 9일에도 평일과 같이 원서를 접수하고 마감일인 12일에는 하오6시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하라고 각대학에 지시했다.

同點者 査定기준 확정

釜山·全南 대학들

【光州】 대입학력고사성적이 지난해에비해 크게향상된 가운데 동점자가 대폭증가함에 따라 도내 각대학들도 동점자사정기준을새로마련했다.

▲全南大는 동점자가 생길때 학력고사성적, 내신성적, 면접고사성적, 연소자순으로 사정키로했다.

▲朝鮮大는 일반계와 사범계로 나눠 일반계는 학력고사성적, 연소자순으로 사정하고 사범계는 고교생활기록부 성적, 학력고사, 연소자의순으로 사정키로 했다.【聯】

【釜山】 83학년도 대학입학 신입생 원서접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8일 부산시내 9개대학등 부산대학, 동아대학등 4년제 전기대학들은 대부분이 학력고사 성적우수자를 우선선발하는등 동점자 처리기준은 다음과같다.

▲釜山대학교=①학력고사 ②내신성적 ③83학년도졸업생 ④연소자 ⑤지방학생 ▲東亞대학교=①학력고사 ②내신성적중 교과성적 ③면접 ④연소자 ▲産業대학=①학력고사 ②면접 ③연소자 ▲東義대학=①학력고사 ②내신성적 ③고교생활기록부 ④연소자 ⑤지방학생 ▲水産대학=①학력고사 ②면접 ③연소자 ▲海洋대학=①학력고사 ②내신성적 ③연소자 ▲釜山教大=①학력고사 ②국가유공자녀 ③연장자 ▲仁濟의대=①면접 ②학력고사 ③내신성적 ④연소자【聯】

延大、査定원칙확정

延世大는 8일 83학년도동점자 사정원칙을 확정했다.

동점자 처리기준은 입학인원의 70%를뽑는 1지망의경우 ▲학력고사성적 ▲고교내신성적중 교과성적 ▲고교내신성적중출석상황에따른성적 ▲당해년도졸업생우선 ▲연소자우선순위로선발한다는것.

또 입학인원의 30%를뽑는 2지망자의 경우 1지망탈락자를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제1지망자 경우와 같은 순위로 사정한다.

바람많은小寒추위 계속

濟州제외 전국이零下圈

뒤늦게찾아온 小寒추위가 일요일인 9일에도 계속됐다가 10일 이후에야 누그러질것같다.

중앙기상대는 8일부터 전국이 한랭한 대륙성고기압전면에들어 휴일인 9일 전국의 날씨는 대체로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많이 불겠다고 예보했다.

9일 서울은 최저 영하12도, 春川영하14도, 水原영하13도, 大田영하11도, 淸州영하12도, 光州영하6도, 全州영하7도, 釜山영하3도, 大邱영하8도, 濟州2도 등으로 濟州를제외한 전국이 영하권으로 떨어진다.

중앙기상대는 10일부터는 조금씩 누그러져 서울이 최저 영하8도, 大田영하10도, 光州 영하3도, 大邱 영하1도가 되겠고 11일이후의 기온은 영하8도에서 영상3도 내외의 예년기온으로 돌아가 쌀쌀한 겨울날씨가되며 13일께는 한때 눈·비를 뿌리기도 하겠다고 예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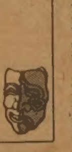
「3번째 危機」 태평양서 急報받은 權泰根 機長

搭乘客 눈치못채게 "고독한 싸움"

「기내에 폭발물장치」—. 7일새벽 뉴욕을 떠나 앵커리지를거쳐 서울로 향하고 있던 KAL 007便 점보기에 날아든 급전이다. 태평양상공에서 벼락을 맞은 기장權泰根씨(43·사진)는 까무라칠만한 놀람속에서도 2백13명의 승객과 승무원22명의 얼굴이 눈앞을 스치고 지나갔다고 말한다.

이어 폭발물이 장치된 비행기가 비상착륙을 시도하다가 폭발하는염화장면이 떠오르기도 했다.

급전내용이 거짓이기를빌면서 어떻게든 승객과 승무원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기수를 일본 나리따공항으로 돌리고 비상착륙을결심했다.



무엇보다도 승객들의 동요가 문제였다. 이스라엘특공대가 엔테베공항에 내릴때처럼 나리따공항착륙 1시간30분전부터 승객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기수를 조금씩 낮추어 갔다. 기수를 낮출때마다 점보기를 조종하며 겪었던 두번의 위험한 순간이 떠올랐다.

2년전 점보기기장으로 근무한지 얼마안돼 미국에서 金浦로 향하던 비행기가 하와이이륙 1시간만에 오른쪽엔진에 불이났다. 이를본 승객들이 몹시 술렁거렸다. 이때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한쪽날개엔진만으로 호놀룰루공항에 비상착륙, 승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지난해4월에는 中東에서 귀국도중, 홍콩상공부근에서 「터브란스」란 이상기류에 휘말려 비행기가 곤두박질을 했다. 이때도 조정간을 굳게잡아 위기를 넘겼다. 그두번의 위기를 넘긴경험을 생각하니 기분이 훨씬 차분해졌다.

공항이 가까와질수록 마음은 초조했지만 이번에도 성공할수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랜딩기어를 내리는순간 의아한 표정을짓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승객들은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순간 金浦에 도착한줄 알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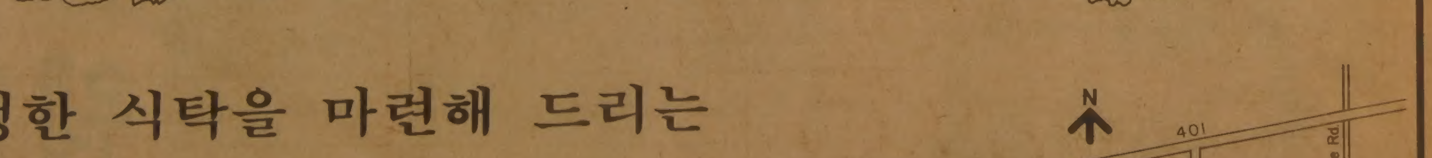
비행기가 활주로에 멎는순간 또한번 승객들을 무사히 모셨다는 기쁨과 허탈감이 온몸을 감쌌다.

『외로왔읍니다. 모든것이 저하나의 판단에 달렸다고 생각하니 더욱 그랬읍니다. 그러나 고독을 이기는 냉정함만이 승객들을 구출할수있다고 생각했읍니다』

70년 육군항공대대위로 예편, 72년 KAL에 입사한 權기장은 억세게 운이좋은 터프가이라 할것이다.

【李鎭기자】

개업 특별봉사



다양한 품목
정상의 품질
저렴한 가격
최대의 봉사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 드리는

한인식품

한인에 필요한 식품, 생활필수품 일체

시내 전역과 근교 무료배달 연중 무휴 아침10시부터 밤10시까지

15 West Deane Pk. Dr. (east mall plaza) Etobicoke Tel. 622-2643 대표 손덕수

프로복싱 新人王 준결승戰 첫날

「KO突風」들 잇달아 침몰

임자만난 "작은차돌"(乭石) 혼쭐

徐炯沃등 12명 決勝선착

82년도 전국 프로복싱신인왕선발대회 준결승전이 8일 하오 문화체육관에서열려 12명이 결승전에 선착했다. 이날 6체급 12게임에서는 2개의 KO승이 나오는등 영하의 한파를녹인 화끈한경기가 속출했다.

이날 주니어 웰터급의徐炯沃(동아)은 文秀鎬(중앙)와 초반부터 난타전을 벌인끝에 2회에 통쾌한 KO승, 관중들을 열광시켰다.

徐는 첫라운드 공이 울리자마자 좌우훅을 적중시켜 경기의 주도권을 잡았으나 중반에 로프에몰려 좌우훅을 무수히맞고 그로기직전까지 몰렸다. 그러나 徐는 곧이어반격에 나서 文을 맴돌게 다운직전으로까지 밀어붙였다.

2라운드도 1라운드와 양상이 비슷했다.

양선수는 모두 가드를 내리채 좌우훅과 카운터펀치로 맞서다가 徐가文의 안면과복부에 강한좌우훅을 터뜨려첫다운을 뺏어승기를 잡았다. 文은 카운트8에서 가까스로 일어나 반격을했으나 徐의오른쪽 카운터펀치를맞고 2라운드 2분45초만에 KO로끝러났다.

주니어밴텀급서 金熙鳳(주승)과 金浩鉉(영등포)은 거의 대등한경기를 펼쳤으나 金浩鉉의 왼쪽 숏어퍼가 크게젖져 金熙鳳이 3라운드 2분33초만에 TKO승했다.

金熙鳳은 오른쪽 선제훅에 이은 연결타로, 金浩鉉은 정확한 라이트 카운터펀치로 첫라운드부터 불꽃튀는 접전을 전개했다.

3라운드에 접어들자 金熙鳳은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계속 적중시켜 金浩鉉의 왼쪽 눈언저리를 찢어 TKO로 승부를 냈다.

이번대회 예선전서 2연속 KO승, 돌풍을 일으켰던 주니어플라이급의 유망주 乭石(인천유피)은 테크닉이 뛰어난 金政賢(주승)에게 판정패, 결승진출이 좌절됐다. 金政賢은 3라운드부터 원투 스트레이트에 이은 좌우 어퍼컷으로 乭石을 두들겨 리드를 잡고 마지막 4라운드에서도 정확한 펀치로 乭石의 안면을 가격했다.

乭石은 훅을 휘두르며 대시했으나 방사신경과 테크니이 뛰어난 金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예선서 2KO승을 기록하며 눈길을 끌었던 주니어웰터급의 黃根夏(동아)도 2라운드까지 朴郞求(와룡)와 대등한 경기를 벌였으나 3라운드이후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 판정패했다.

왼손잡이인 朴은 초반 툭툭 던지는 黃의 라이트 선제펀치에 고전했으나 재빠른풋놀림으로 연결타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3라운드부터 경기의 주도권을 잡았다.

2라운드까지 백스텝을 밟으며 카운터만 노리던 朴은 3라운드 중반부터 정확한레프트훅과 스트레이트로 득점을 올리기 시작, 마지막 라운드서는 체력이 떨어진 黃을 짧은 훅과 어퍼컷으로 두들겨 승리를 거두었다.

◇준결승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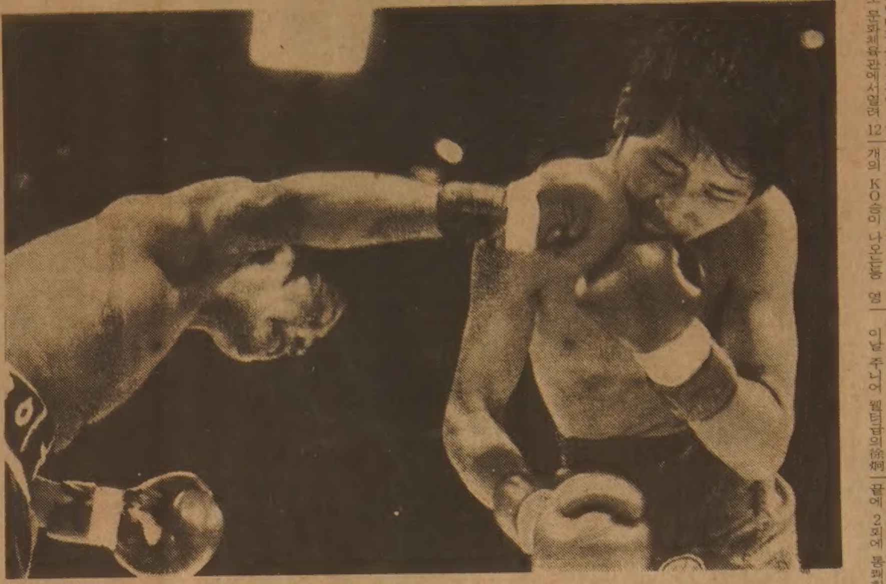
▲주니어플라이
金政賢(주승) 판정 乭石(인천유피)
張昌水(극동서부) 판정 宋秉浩(흥군)

▲주니어밴텀
廉健鎬(극동중앙) 판정 金澤鉉(삼우두꺼비)
金熙鳳(주승) TKO 3회2분33초 金浩鉉(영등포)

▲주니어페더
張相仁(남성) 판정 李應瑞(준호)

▲주니어라이트
尹東烈(동아) 판정 金正煥(극동중앙)
金炳俊(롯데) 판정 朴魯中(중앙)

▲주니어웰터
朴郞求(와룡) 판정 黃根夏(동아)
徐炯沃(동아) KO 2회2분45초 文秀鎬(중앙)



◇寒波를 녹인 링의熱氣 주니어 페더급준결승전에서 李應瑞㊧가 張相仁의 안면에 펀치를 적중시키고있다. 張이 판정승, 대망의 결승전에 올랐다.

金煥珍 오늘 복수戰

발빠른 도까시끼 變則으로 잡아야

WBA J플라이

◇타이틀전을 앞두고 도전자 金煥珍㊧과 챔피언 도까시끼가 포즈를 취하고있다.【오오사까 7日AP詩=聯合】

【東京=宋李彬특파원】 프로복싱 WBA 주니어 플라이급 왕좌에 도전하는 金煥珍이 9일 하오 7시30분 京都府立체육관에서 흠림의 챔피언 도까시끼·가쓰오(渡嘉敷勝男)와 타이틀매치 15회전을 벌인다.

81년12월 도까시끼에게 챔피언벨트를 넘겨주었던 金煥珍으로서는 이번경기가 13개월만에 갖는 복수전이며 한국프로복싱이 83년에갖는 첫세계타이틀전이어서관심이크다. 한편 예비검진에서金煥珍은 키가 1m51.2, 도까시끼는 1m57로 밝혀졌고 가슴둘레는 金이 91㎝, 도까시끼 83.5㎝였다.

타이틀매치를 앞두고日本의 권투전문가들은 6-4로 도까시끼 우세를 점쳤으나 金煥珍이 변칙복싱으로 발빠른 도까시끼를 혼란에 빠뜨릴경우 막상막하의 접전이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레슬링도 常備軍制

협회, 27명뽑아 「2백80일 强訓」

대한레슬링협회는 앞으로의 각종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올해부터 상비군제를 운영, 국가대표를 4배수로편성으로 경기력을 향상시키기로했다.

이에따라 협회는 자유형 14, 그레코로만형 13명등 27명의 상비군을 뽑아 오는11일부터 2백80일동안의 강화훈련에 돌입키로했다.

이번 상비군은 로스앤젤레스올림픽과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까지 이어질수있도록 고교생중심으로 선발됐다.

◇상비군 ▲자유형=李相佰(동국대) 鄭基達(경북공고) 金春浩(경북체고) 金海龍(전남체고) 金正民(동국대) 孔龍日(강릉고) 金建萬(보문고) 鄭永基(원광대) 姜俊錫(와산고) 張薇明(순심고) 李培薰(대전체고) 金洪坤(전북체고) 李允鎬(마산상고) 宋俊河(전남체고) ▲그레코로만형=金治洙(한평농고) 金承民·柳相玉(이상전북체고) 李青天(송도상) 金承榮·趙永濟·裵元鎬(이상 전남체고) 黃哲洙(원광대) 金原基(전남대) 張仁鎬(전북일반) 金基贊(대전체고) 崔仁永(강릉고) 李東雨(대전체고)

「컴퓨터세터」로 다시 태어나…

배구 朴美姬

83년 여자실업배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많은 배구인들은 朴美姬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2월 光州女商을 졸업하고 美都波 유니폼을 입게되는 朴美姬는 배구전문가들의 주시속에 성장을 거듭해왔다.

朴美姬는 고교1년때에 주니어대표선수로 뽑혀 80년서울서 열린 제1회 아시아청소년 선수권대회 한국우승의 견인차역할을 훌륭히해냈다. 이듬해 멕시코서 열린 제2회 세계주니어 선수권대회때도 주공으로 활약, 한국의2連覇에 기여했다.

81년 12월 디나모대회를앞두고 국내배구사상 처음으로 여고2년생 대표선수로 발탁됐다.

지난해 NHK대회, 아시안게임때도 선배들을 제치고주전으로 뛰었다. 朴美姬는 볼로 나무랄데가 없는 선수다. 거포는 아니지만 날카로운스파이크, 특히 중앙에서의 속공과 페인트공격은 수준급이다. 코칭스태프가 주문하는 어떤 어려운 동작도 타고난 재질로 잘소화해낸다.

朴美姬는 올해부터 새롭게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13일부터 美都波에들어온 朴은 세터로 데뷔하기위해 구슬땀을 흘리고있다.

흔들린 美都波 꼭再建

美都波 李昌浩감독은 『朴의 세터변신이 성공할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朴美姬는 81년 디나모대회에서光州女商및 美都波선배인 李三任과 더불어세터체제를 이루어 성공적인 변모를 보여준바있다. 불과 20여일의 훈련으로 朴美姬는 이대회에서 세터역할을 훌륭히 해냈고 전위에서는 날카로운 중앙속공으로 西歐강호들의 얼을 빼놓기도했다.

이후 공격수로만 활약하다가 다시 李昌浩 감독밑에서 본격적인 세터수업을 받고있다.

『패스자체가 좋고 몸의유연성이 뛰어나다. 본인의 희망도 공격수를 겸한 세터인만큼 대성할 가능성이크다』고 李감독은 장래를 낙관한다.

李감독은 『劉敬花·尹英乃등에 비해 세터데뷔가 다소 늦지만 소질로 봐서 시기는 큰문제가 되지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朴美姬가 공격수로서의 역할을 버리는 것은 아니다.

공격수로서의 단점도 착실히 보완하고있다. 손목과 제1·제2관절로 타구의 방향을 조절하는법과 더욱 스피드있는 페인트를 구사하기위해 남다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올해 朴美姬의 1차목표는 「타도現代」다. 70년대와 80년도 초반까지 무적의 팀으로 군림해온 美都波는 81년 泰光產業에 정상을 한차례 내주고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82년에는 現代에 최강의 위치를 넘겨주고 2위권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건방진 말일지모르지만 언니들과 힘을합쳐 現代를꺾고 다시 美都波를 일으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어요』 벌써부터 美都波에대한 충성심과 야무진 결의를 보여준다.

李昌浩감독도 朴美姬의 기여를 기대하는 눈치다. 『선배 李三任과 朴美姬를 더블세터로 포진하고 공격력과수비를 강화하면 올해 중반부터는 現代를 꺾을수있다』고 자신감을 보여준다.

朴美姬는 정초 KBS주최 一信女商과의 신흥라이벌전서 발목을 다쳐 뛰지는 못하지만 볼을 갖고 움직이는 극성을 보이며 실업데뷔의 날을 고대하고있다. 【金仁奎기자】

새롭게 83년을… ④

◇朴美姬신상명세

본적	전남 해남군 화산면 중앙리773
현주소	서울 종로구 구기동 153의1 미도파체육관
생년월일	63년12월10일
가족관계	朴鍾善(47)李三子씨(45)의 2남2녀중 3째
신장체중	173.5㎝ 65㎏
학력	화산국교·광주동성여중·광주여상
취미	뜨개질

「번개 페인트」로 現代 혼내줄래요

88五輪·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통합

88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SLOOC)및 86서울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SAGOC) 사무국이 오는 29일부터 단일기구로 통합된다.

서울시 陸上聯盟 鄭泰守회장 유임

서울시 육상경기연맹은 8일 82년도 대의원총회를열고 鄭泰守회장을 유임시키는 한편 집행부를 구성했다.

◇신집행부 ▲회장=鄭泰守(한보그룹회장) ▲부회장=禹鍾喆(실무)·禹壯鉉 鄭日東 ▲전무=金炳起 ▲총무=柳喜男 ▲경기=崔忠植 ▲기획=金德起 ▲재무=孫慶壽 ▲심판=鄭命善 ▲훈련=趙榮昌 ▲이사=梁海眞 李光植 金龍中 尹貞榮 金相雲 ▲감사=崔三龍 李承遠

嶺南大등 11팀참가 大學미식축구

제3회 전국대학 아메리칸풋볼(미식축구) 동계선수권대회가 11개팀이 참가하는가운데 11일부터 5일간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열린다.

이번대회에는 지난해에 팀을 창단한 嶺南大 東義大등 전국굿볼팀이 총출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대회는 4개 예선조로 나뉘어 리그를펼친뒤 각조1위 팀끼리 결승토너먼트로 최종승자를 가리게된다.

◇예선조편성 ▲A조=연세 부산산업 동아 ▲B조=한양 부산 서울 ▲C조=성균관 해양 동의 ▲D조=고려 영남

◇대진일정 ▲11일 연세-서울 한양-부산 해양-동의 ▲12일 한양-서울 성균관-동의 연세-동아 ▲13일 해양-성균관 부산-서울 산업-동아 고려-영남 ▲14일=준결승 ▲15일=결승전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朴婉緖 作 <313>

부드러운 겨울 ㊴

『오빠 제발 지금 저 농담할 기분 아녜요』

수지는 수철의옷소매를 끌어당기면서 애걸했다.

『그랬겠지。암、그랬겠지。지금 넌 매우 심각할거다。여러분、글쎄 내누이동생은 이렇답니다。우리같은 속물이 아니거든요。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제몸 제식구 호강하고 가끔 이렇게 파티도 열어 친구들과 즐기면 됐지 제집 문밖에서 거지가 얼어죽어도 내알게뭐냐는 우리네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앱니다。보시다시피 앤 지금 어느 변두리 고아원에서 더럽고 병든 고아들을 뜨겁게 끌어안고 며칠 숙식을 같이하다 왔을 겁니다。매제(妹弟)가 벌써 몇달째 해외로 출장중이거든요。어쩌면 양로원에서 외롭게 죽어가는 이 세상에 혈연이라곤 없는 노인의 임종을 지키고 왔을지도 모르죠。문둥이들의 썩어문들어진 살을 씻기고 깨끗한 새옷으로 갈아입혀주고 왔는지도 모르고요。제 매제는 참 행복한친구 아닙니까? 우리네 잘아 보세요。이렇게 예쁜 아내를 서너달씩이나 독수공방을시키면 온갖 잡스러운생각 때문에 바깥일이 제대로 손에 잡히겠읍니까?』

『어머 한사장님、석달은 커녕 삼년씩이나 저를 독수공방시키고 기어코 박사학위를 따 가지고 온 우리 그이앞에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목이 유난히 짧아 목에 건 굵은 금줄이 흡사 목을 조르고 살속으로 파고든 것처럼 보이는 뚱뚱한 여자가 수철의 말에 이렇게 항의했다。몸집에 비해 목소리는 가냘프면서도 엉겨붙는 것같은 허짧은 교성(嬌聲)이었다。좌중에 파문처럼 짓궂은 웃음이 번졌다。못생긴 여자의 값지고 화려한 치장은 차라리 괴기스러웠다。

『아차차、부인 용서하십시요。제 누이 칭찬이 지나치다보니 본의 아니게 문박사내외분에게 실례를 범했나봅니다。정절과 미모를 함께 지닌 아내가 우리 남자들 꿈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아내가 둘중의 하나만 지녔어도 감지덕지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어머머… 너무 하셨다、한사장님』

용모에 자신이 있어보이는 부인들이 여기저기서 항의를 했다。그러나 심각한건 아니었고、그만큼 그들은 취기가 맺어준 화기애애함을 아끼고 사랑할줄 알았다。

수철은 그만했으면 그 예기치않은 틈입자로 인한 체면손상을 충분히 면했다고 생각하는지 수지에게 대충대충 거기 모인 사람들을 소개했다。

K대학의 문박사 부부、S무역의 김사장부부、A상사의 미국지사장부부、D지검 황검사부부、국회의원、사장、또 사장부부등 쟁쟁한 인사들이다。수철의 동창선후배라고했다。동창들이 다달이 돌아가며 이렇게 마음놓이는 우의의 기회를 갖는것은 부부가 함께 기다리는 즐거움이라고 연락이 옆에서 덧붙였다。

혈색좋은 펑퍼짐한 얼굴에 머리만 백발인 남자가 수지에게 따뜻한 고기를 덜어다가 권했다。파산적처럼 꼬챙이에 꿴 고기는 연하고 감미로왔다。수지는 맥주컵을 비우고나서 고기를 천천히 씹었다。

『부인을 알게 돼서 영광입니다。저는 데레사수녀를 제일 존경하거든요。한국에도 그와 유사한 분이 계시다니 놀랍습니다。충격입니다。우리처럼 넉넉하고 근심없이 사는데만 익숙한 사람들에겐 매우 필요한 충격이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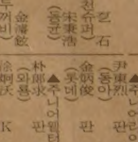
흰머리의 남자가 이렇게 아부의 말을 늘어놓는 것을 수지는 메슥거리는 느낌으로 바라다만 봤다。

●백학같이 우아한 미!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사진촬.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MILLWOOD FLOWER SHOP)——실비아·원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빙,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 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그라나다(GRANADA)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사시미·생선초밥·덴뿌라 등…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 레스토랑
각종한식·중국식·양식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스카보로) 498-1300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갈비는 맛좋고 기름이 적은 삼복식품으로….
★겨울김장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맛이 최고인 삼복김치로 대용하세요.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한인 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실 내 장 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Enco Mechanical 냉동기·히팅(전기·개스) 수리·설비.
Lic. Mechanic, Engineering Technician
전화: 769-5956 김명근.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보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4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 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의 류 수 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컴퓨터 식자 서비스 : 533-2361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광고문의 533-2361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완 더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타 자 기

공병우 한영타자기 캐나다 총대리점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 있음.
전화 : 245-0995 김영수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치 과

Dr. Mark Kochman ◉전화: 233-9454, 233-4888
(월~토)9:00am-6:00pm, (목)9:00am-9:00pm
3101 Bloor St. W. Ste 203, "Season's Greetings"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이명윤회계사무소 - 스카보로
◉1974년도 육대학 경제과 전공 ◉1976년도 육대학 경영관리학 회계학전공 ◉현 캐나다회계의 컴퓨터회사의 어카운터 매니저 ◉소규모사업체 회계사무 6년경험
44 Gil Roy Dr. Scar. Ont. M1P 1J9
전화 : 752-9332(R) (오후 5시30분이후)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주방헬퍼 구함(무경험자 관계없음)
직접 내방원함. 25 The West Mall
(Sherway Garden Mall) Golden Bird B.B.Q. Chicken

Indoor골프장에서
파타임으로 일할 여자분 구함.(학생환영)
전화: 298-3584, 638-4658

입주하셔서 애기 봐주실분 구함.
2살, 5살
전화 : 447-1460

나염프린팅, Golden Craft
나염프린팅 배합사, 배색사 구함. 우대하겠음.
전화: (B)247-8870, (R)242-4319 Mr. 김

도나스 가게에서 주말에 파트타임으로
밤일 하실분 구함.(키프링 & 렉스데일)
전화 : 743-3822

도넛숍에서 저녁에 파트타임이나 풀타임으로
일 하실분 구함.
전화: 690-3920 (B), 491-8734(R) Mr. 김

영주권 가지신 분으로 입주하여 애기봐주시며
가족같이 지내실분
전화 : 271-1482(낮), 274-5685(저녁)

입주하셔서 애기돌봐 주실분 구합니다.
전화: 669-6438

경험있는 키친 헬퍼 및
웨이트레스 구함.
전화 : 251-1908, 466-4578 (After 5p.m.)

경험 많은 여자캐쉬어 구함. 미시사가 지역.
오후5시~11시까지 하실분(토·일 포함)
전화 : 625-1620

카운터 헬퍼구함. 영어 잘해야 하고 적극적이고 바쁜 점심시간을 잘해내야 함.
전화 : 449-2012(7-10 pm) Mr./Mrs. Goomar

식당(32좌석) 누구든지 맡아서 운영하실분.
렌트: 월 $350. ◉527 Evans Ave.
전화: 823-5135(R) 691-6768(B) Mr. 김

맥스밀크에서 금·토·일 일할
유경험 Cashier 구함. 미시사가 지역.
전화 : 278-4867

일본음식점에서 일할 주방장과 요리사 구함.
풀타임 그리고 파트타임 원함.
전화로 예약하세요. 755-3010 or 923-6026
Kyoto Japanese Restaurant

남자 풀타임 헬퍼 구함.
아침8시부터 8시간 6일 근무.
전화: 923-3939

초저녁 사무실청소 하실분.
전화: 368-8421

도넛숍 헬퍼 구함.
스카보로 지역.
전화 : 282-0634 Mrs. 김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외롭고 쓸쓸한 남자(담배 안핌) 결혼대상자로 토론토나 한국에 있는 30-40대 한국미혼여성을 찾읍니다.
전화 : 653-3105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금호실업	224-2491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51-8835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21-9144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88 올림픽후원회	622-3674
승공문화협회	444-3658
온타리오한인맹인후원회	593-8943

개 인 지 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심껏 지도, 초보자 환영. DIXON & KIPLING
전화: 243-7752(749-1316(낮·Answering Service) Jennifer Hong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바창우

동불토요학교. ◉757-7828(김지현)
지원자격: 5학년~10학년. 영어·수학·한국어 ◉UT재학생과 졸업생 장소: Midland Ave. Collegiate Ins.(에그린톤×미드랜드)

바이올린 레슨.
푸로페셔얼. 개인지도. All Level.
전화: 233-4200 Mr. Wong

매 매

Van Truck - 77년도 Dodge 흰색
6만5천 Km. Excellent Condition
전화 : 533-2363 Mrs. 김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아스킹: $30,000+스탁 렌트: $750
Bloor West 전화: 535-6838

'81년도 Capri 4기통 AM, FM카세트.
Automatic 추렌스미션. Power 브레이크. 가격: $5,500
전화 : 536-8262(6시 이후)

스카보로에 있는 Bakery 매매함.
경험없어도 할수 있음.
주매상 : $3,500 아스킹 : $59,000
가격에 모든 도구 포함돼 있음.
전화 : 881-5186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 $5,500. 리스 : 4년+5년 옵션
◉주매상 : $3,500. 리스 : 4년+5년 옵션
A.E. LePage Real Estate
전화 : 741-9170 Mrs. 우

뱅쿠버에 있는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5,000. 아스킹: $40,000+스탁
토론토전화 : 282-8066(Mr. 리)

가게달린 건물 매매
◉2층에 살림집(1200 sq/ft)
◉가게(1200 sq/ft) ◉지하실(1200 sq/ft)
◉가게리스는 금년 9월에 끝남.
◉현주매상 $4,000이나 더 Sale을 많이 올릴 가능성있는 가게임. 전화: 243-0233 Mr. 김

◉ZET Spray $150. ◉Pop 머신 $200.
◉Teyler Slush 머신 $6,000.(6개월 사용했음)
전화 : 282-3553(낮), 284-9325(저녁)

- Choice 레스토랑 비지네스와 부동산 매매
- Deli 커피숍. 주매상 : $3,000. 동쪽에 있는 바쁜지역. 쉽게 운영할 수 있음. 아스킹 : $72,500
- 상업용 2층 빌딩. 1층에 레스토랑 있고. 2층엔 2 Bed Rm.아파트 미래 년 렌트인캄 $13,800. 아스킹 : $134,500

전화 : 421-2214 Miss Cheng.
New Bliss Real Estate Co-operation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리스: 5년+5년. 아스킹: $10,000 or Best offer.
전화: 531-1023, 531-1005(Ralf)

Davenport & Christie. 3베드룸 타운하우스.
화장실2개. 센트럴·에어콘디션. 개스히팅.
황 순일 481-3443
Canada Permanent Trust Co. Realtor

◉도넛숍
매상으로써 캐나다에서 최고수준의 주 $10,000
아스킹: $350,000. 년순수입: $150,000.
◉드라이크리닝 디폿(Depot)
한달순수입: $1,500보장. 혼자서 6일 오픈. 아스킹: $23,000
◉후라이드 치킨
주매상: $7,500 아스킹: 195,000 년순수입: 약 $100,000
◉미스터 씨업머린
주매상: $7,000 아스킹: 185,000
이훈모부동산 전화: 225-1204

◉년매상: $107,000 Net Net Plus.
11개스토아 플라자내. 아스킹: $1,200,000.25%다운.
◉1.3에이커. 따로 떨어진 두빌딩.
빌딩안에 Becker's 스토아와 Self Serve 개스 스테이션이 있음. 아스킹: $380,000.년매상: $34,000.Net Net.
◉Yonge Street에
금방 완성된 플라자. 아스킹: $5,000,000.10% Return.
763-5555 Doris Burda
Cholkan Real Estate Ltd.

토·일요일 주말헬퍼 구함.(Mac's Milk Store)
Eglinton East & Laird Dr.
전화 : 421-1089

스카보로에 잘 꾸며진 일본음식점 매매.
한국음식점에도 잘 어울림
전화 : 755-3010(3pm-5pm) Fumi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출장지도및 주말지도도 함.)
◉개인·소구룹·단체. 문의: 742-4208 김유수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미도파2층 렌트.(현재 입주 가능) ◉사무실과 살림 동시에 할 수 있음. ◉1Bed Rm. 화장실·부엌·사무실2개.
전화: 536-1692

1 Bed Room 세놓습니다.
(더퍼린 써브웨이 부근)
전화 : 536-8262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린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767-1702(6시이후)(Mrs. 김)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138-0628(R) Mrs. Oh

스타미용실(Mrs.김) ◉남녀커트·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화·토: 9am~8pm. (B)741-4410. 매주월요일만 동부영업: 10am~7pm
일요일 휴업. 전화: 267-0333(동부한국식품 플라자 내)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조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 생일, 파티케익등 전문(배달가능)
534 St. Clair Ave. W. 653-1149 Mrs. 배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얼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배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임윤식 (R)638-6919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246-4384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지개 칼라-촬영전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HOME COMPUTERS
▲판매및 수리 ▲파트타임 비지네스에 관심있으신분 전화바람. 전화 : 239-1698 오후6시~9시 (MR. 이)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훠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 W.
535·9541 MR. 김